

<b>코스피</b> 2681.00 (+6.69)	<b>코스닥</b> 769.21 (+1.55)
<b>금리</b> (연이자율) 2.989 (+0.036)	<b>환율</b> (환율) 1338.25 (+2.25) (2일)



Economy



# 존재감 커진 中 LNG선 韓 친환경 초격차 고배

중국이 한국의 LNG 운반선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 불리며 LNG 운반선 분야에서 주요한 경쟁력을 갖추어 왔으나, 최근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우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355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규모의 선박 1234척이 발주됐다. 전년 발주가 2916만CGT·1302척인 것을 고려할 때 척수는 감소했으나 CGT 기준으로는 22.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7월(3877만CGT·

글로벌 초대형 선박 1234척 발주 中, 카타르서 LNG선 18척 계약 저렴한 인건비, 원가 경쟁력 갖춰

K조선, 암모니아·수소·전기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종 기술개발 박차

1513척)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811만CGT·176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별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전년동기(691만CGT·153척) 대비 척수와 CGT 모두 증가해 올해도 견조한 수주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국내 조선업체의 실적개선은 LNG선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HD한국조선해양(17척), 삼성중공업(15척), 한화오션(12)에 발주한 LNG선만 해도 총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LNG운반선은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 저도만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특히 적당 3000억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어 조선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 10년 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인도한 17만 입방미터급 LNG-FSRU

만 해도 중국 조선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벌크선을 중심으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했다.

기술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부품값 등으로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어 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LNG운반선 가격은 한국보다 5~7%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영조선공사(CSSC)는 카타르 에너지 공사로부터 LNG 운반선 18척을 수주했다.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LNG운반선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셈이다.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LNG선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2021년 8척, 2022년 60척을 수주하며 기술 발전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중국의 LNG 건조 능력 확장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내 업체는 기술 보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내 조선사는 차세대 친환경 선종으로 암모니아·수소·전기추진선 등에 주목하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3년 5월 신설한 EP(친환경 추진)사업부를 중심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선급협회(ABS)와 협약을 맺고 대형 전기추진선 국제표준 정립에도 나선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연료전지 전문 회사 '블룸에너지'와 공동으로 연료전지 선박을 개발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추진 LNG 운반선에 대한 선급 기본승인을 획득했고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도 개발해 2022년 노르웨이 선급인 DNV로부터 기본설계 인증을 받았다.

한화오션 또한 선박의 주요 동력원으로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ESS)을 장착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흥 R&D 캠퍼스에 전동화·육상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전기추진 선박 시스템에 대해 연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탄소포집, 암모니아, 수소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R&D 영역에 집중해야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처형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 대통령 불참

제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연설 없는 개원이자 최장 지각 기록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 공공기관 재정 적신호... 4년후 부채 800조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8년 35곳 부채 90조 더 늘여 부채비율 190%로 건전화 추진

오는 2028년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올해 대비 9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비율 개선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채비율을 2024년도 예측치 207%에서 2028년에 190%대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은 2026년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35개 기관이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 및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 예상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 9000억원 증가한 1212조 4000억원이다. 2028년 추정 부채는 올해보다 93조 1000억원 늘어난 795조 10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해 190.5%까지 낮추는 목표를 내세웠다. 올해보다 16.8%포인트(p)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2028년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 8000억원) 탓에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분야별로, 에너지 부문은 2028년 부채가 올해보다 2조 9000억원 늘어난 291조 40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비율은 168.4%p 줄어든 383.2%로 전망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 60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상품 135개

# 치열한 ETF 경쟁에 '좀비' 상품 쌓인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자산운용사 간 경쟁 등으로 인해 ETF 신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저조한 '좀비 상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ETF가 순자산총액 50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거래량도 1000주 미만을 기록하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ETF는 60개로 작년말 49개 대비 22.44% 급증했다. 올해 ETF 시장은 150조원을 넘기는 등 규모가 불

어나면서 신규 상품이 쏟아지고, ETF 리브랜딩을 진행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들도 다수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상장된 ETF는 881개이며, 올해 들어서만 99개의 상품이 신규 상장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수가 845개사임을 감안했을 때, ETF 상품 수가 상장 기업 수보다 많은 셈이다.

유사한 ETF들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일 거래량 1000주 미만인 '좀비' 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약 135개(15.32%)의 E

TF 상품이 평균거래량(60일) 1000주를 넘기지 못했다. 이 중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인 ETF는 21개다.

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 중 반기 말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품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ETF가 다음 반기 말에도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다만 ETF는 상장폐지 후 ETF가 편입돼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후 현금화해 지급하기 때문에 금전적 타격은 덜한 편이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응급실 근무 의사, 평시 73%... 4일부터 군의관 배치 /사진 뉴시스  
▲ 민주 "文 전 대통령 수사, 치졸한 정치 보복"

▲ '기밀유출'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없었다  
▲尹 대통령 "추석 의료특별대책 만전 기해달라"



▲ 추경호 "文 직접 수사 불가피... 수사 중단 없다" /사진 뉴시스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전 본격화... 강신만 등 출마

# 7800만원대로 추락한 비트코인… “반등 시그널은 아직”

美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예고에도  
고래투자자 매도, ETF 자금 유출  
헤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도 영향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78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했지만 대량 매도세가 반복돼 상승 동력을 잃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격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만 7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5일 6만5000달러 터치 이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거래소에서도 7800만원대에 거래되면서 한 달 만에 8000만원 밑으로 하락했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미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락 원인으로 고래투자자(대형투자자)의 매도세를 꼽고 있다.

고래투자자 움직임을 추적하는 '웨일얼러트'에 따르면 한 고래 투자자의 특정 지갑 주소에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 직전 1억4181만 달러(약 1883억원)

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고래들 역시 최근 비트코인이 6만5000달러를 유지하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래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이번 매도세가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억7560만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일 이후 최대 순유출로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7020만 달러, 아크21웨어스 ARKB에서 6500만달러, 비트와이즈 BITB에서 164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밀리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약제만 가득하고 뚜렷한 상승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단기간 가격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는 공식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통상 비트코인의 9월 수익률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9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올해는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과 곧 치러질 미국 대선 등 추가 압박이 더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9월 비트코인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토종 바이오시밀러’ 출격 잇따라 약가 40% ↓… 환자 선택폭 넓힌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 론칭  
동일제형 대비 약가 40.5% 저렴  
셀트리온제약, 졸레어 등 3종 출시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토종 바이오시밀러(복제약)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을 30~40% 가량 낮춰 국내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최초 허가를 받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에피즈텍’을 론칭하고 마케팅을 본격화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인천 송도에서 국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에피즈텍 론칭 심포지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품 출시와 관련해 단독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에피즈텍의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약가는 129만8290원

으로 출시됐다. 지난 7월 1일 고시 기준, 동일 제형의 스텔라라 약가(218만2000원)보다 40.5% 저렴한 가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에피즈텍을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폭넓은 대안을 제공하고 합리적 약가로 국가 건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에서도 공인한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제약은 보건복지부 약가고시를 거쳐 바이오시밀러 제품 3종을 국내에 출시하고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는 각각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오리클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텐젤트’ 등이다.

지난 5월과 6월 유럽과 국내에서 각각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중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승인받은 오리클로는 국내에서 같은 성분 중 처음 제품

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오리클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처방되며 75mg과 150mg 두 용량은 각각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28% 할인된 10만2960원과 19만5079원에 급여 책정됐다.

지난 6월 국내에 이어 이달 유럽서 허가를 획득한 스텔라라는 국내에서 판상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궤양성 대장염(UC)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처방이 이뤄진다. 프리필드시린지(PFS)제형 45mg/0.5ml와 90mg/1ml 두 용량 약가는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26% 저렴한 129만8290원, 134만23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5월 국내에서 허가 받은 아이텐젤트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에 사용된다. 약가는 오리지널보다 약 34% 저렴한 33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장인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KABC) 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오른쪽)과 마틴 퍼거슨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 위원장이 2일(현지 시간)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 “한국-호주, 경제협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국과 호주의 경제협력 강화를 이끈다.

장인화 회장은 9월 2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KABC) 합동회의’에 참석해 한국을 대표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했다.

1979년에 시작해 올해 45회째를 맞이한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는 양국 경제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증명하는 유서 깊은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재계에서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호주자유무역협정(KAFTA) 체결 10주년으로, KABC가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깊이 일조해 온 것에 대해서 양국 정부 및 경제인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미를 더했다.

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는 광물, 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협력을 넘어 이제 친환경 소재 및 인프라 혁신을 아우르는 청정 미래 개척에 동참하고 있다”며 “양국이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과 기회를 함께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80년대 초부터 철광

석,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호주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누적 투자비는 지금까지 4조원에 달한다. 또한 매년 약 70억 달러 이상의 철강 원료를 호주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총 원료 구매량의 70%에 달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우방국끼리 연합해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이 확대되는 가운데 포스코그룹은 수십 년간 자원개발 협력을 다져온 호주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양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앞장설 방침이다.

올해 합동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및 스타트업, 방산·항공우주, 식품 및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장 회장은 3일과 4일 양일간 돈패럴 연방 통상관장관, 매들린 킹 연방 자원장관, 로저 커서호주총리 등 호주 정부 인사와 주요 기업 최고경영층과 잇달아 면담하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또 4일에는 호주 원료 파트너사인 로이힐과 공동 후원해 건립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명장 준공식’에 참석해 호주 참전용사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기재부, 57.3조 감축… 14개 기관 건전화 노력 반영

» 1면 ‘공공기관 재정 적신호…’서 계속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에 따른 영향이다.

2028년 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2028년 부채는 11조2000억원 늘어난 137조

7000억원, 부채비율은 4.6%p 줄어든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8000억원 등이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과 비교해 5조1000억원을 추가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전 세계 덮친 전력난... 빅테크기업들 에너지사업 본격 진출

AI 기술 발전 영향... 소모량 급증  
MS·메타 등 전력원 확보 경쟁 치열  
최태원 SK 회장 "원자력 활용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열린 '이천포럼 2024'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K

최근 인공지능(AI) 개발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고갈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원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력수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모량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서버 컴퓨터가 수천대 이상 모인 대형 시설로, 24시간 쉴 새 없이 가동돼 실내 냉각과 습도 유지가 필수다. 일정한 온도 유지에 막대한 전력을 소비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가령, 온라인 검색 한 번에 평균 0.3Wh(와트시) 전력이 사용되는데 반해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검색당 10배 수준인 2.9Wh가 필요하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표준 기관인 업타임 인스티튜트는 AI가 전 세계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에서 내년에는 1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7월 오픈AI가 2027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투자한 SMR 개발사 '오클로'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첫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클로 관계자는 "기존 원전과 달리, 원자료를 소형화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클로는 올트먼이 AI 운용에 필요한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한 스타트업 중 하나다. 현재 올트먼이 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이천포럼 2024'에서 AI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며 "AI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그는 엔비디아, TSMC,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AI 데이터센터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향후 원자력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MS는 전력 충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MS는 지난 5월 글로벌 대체 자산 투자사인 브룩필드애셋매니지먼트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약 13조89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라 MS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5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10.5GW는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인 미국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3.5GW 전력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메타(구 페이스북)도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확보를 위해 지열에너지 개발에 뛰어들었다. 메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세이지 지오시스템즈'와 협력해 지열에너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라 2027년까지 150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메타가 확장 중인 데이터 센터에 공급받게 된다. 150MW는 약 3만 8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지열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

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원이다.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날씨나 시간대의 영향을 받지 않아 데이터센터의 끊임없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충원을 하거나 자연 냉각 시스템 등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제2데이터센터인 '각(閣) 세종'을 개관했다. 각 세종 내 소규모 지열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300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성해 자체 공급한다. 네이버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나무(NAMU)를 통해 주변 부유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서버 열을 식히고 열기를 머금은 공기는 옥상으로 배출한다. 이 열기는 건물 온수나 바다 난방에 재사용된다. 그 결과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국제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인 '리드(LEED)'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 세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중 가장 높은 점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간 1만 3000 메가와트시(MWh) 수준의 전력을 절감해 6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5대 은행 가계대출·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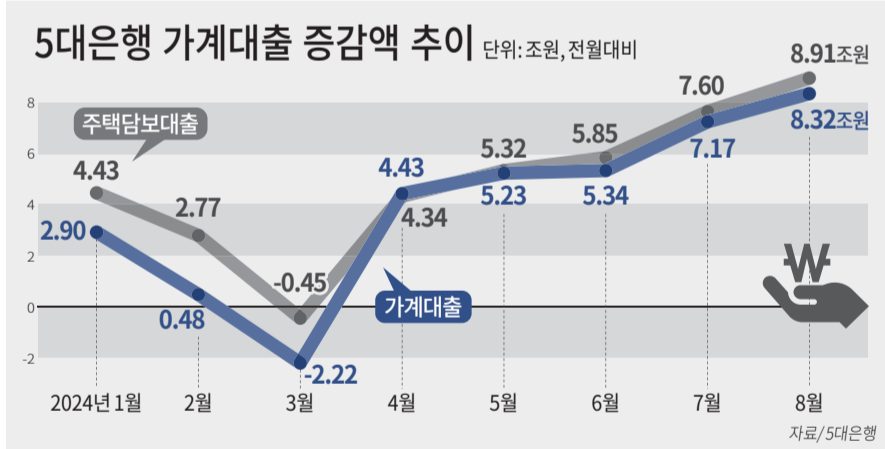
7월 잔액 725.3조... 전월비 9.6조 ↑  
집값 상승 기대감에 규제 전 수요 증가

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9월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 강화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715조7382억원과 비교해 9조6259억원 증가했다.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단계로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8월 5대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8조



9115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들이 금리인상 등으로 주담대 문턱을 높였음에도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7조5975억원)을 뛰어넘었다.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월기준 4억5550만원으로 1년전(4억4302만원)과 비교해 1000만원가량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10억3301만원에서 10억8264만

원으로 약 5000만원 올랐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가산금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 산정 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기존 DSR 규제

연수익의 4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더해질 경우 한도가 낮아질 수 있어 대출 마차수요가 몰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주담대 만기를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면서 DSR 계산식에서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50년만기(연 3.85%)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4억원이지만, 30년으로 낮아지면 3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시중은행의 자체적인 대출 한도 축소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점검에 나선다. 2금융권은 DSR 규제 한도가 50%로 은행권보다 여유로운데다, 금리 인상이나 만기 축소 등 대출 억제 조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농협과 신한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일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 >> 1년 '치열한 ETF 경쟁'... '서 계속'

### "상장·폐지기준 검토 필요"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ETF 시장에서 상장·상장 폐지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해야한다"며 "국내 주식시장에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하고, 20개의 기업이 부도 처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배터리 분야 등에서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또 위축되고 있는 만큼 잘 선별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5월에는 자산운용사의 요청으로 ETF 16개 종목이 상장 폐지됐다. 이 가운데 KB자산운용의 ETF가 14개였고, 한화자산운용의 2개 종목도 포함됐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소규모 펀드가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이 상장돼 있는 만큼 가능한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최근에도 소규모 ETF 2종목을 자진 상장 폐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괜찮은 신상품이 출시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상품들이 타 운용사에서도 나오고, 시장 파이 경쟁으로 인해 상품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사간 ETF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각 운용사마다 관리하는 ETF 개수도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ETF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 등장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상장·상장 폐지 등과 관련해 외부(해외 등)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연구 영역이 진행 중"이라며 "연구 영역 결과에 따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보험사 당기순이익 9.4조... 전년 동기대비 2.8% ↑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보험상품 판매 호조... 투자손익 감소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금감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은 9조366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536억원(2.8%) 늘었다.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증가했지만, 금융자산 평가 이익 감소 등으로 투자 손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순이익은 3조5941억원

으로 전년동기 대비 3741억원(9.4%) 줄었다.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확대로 개선됐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 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했다.

손해보험사 순이익은 5조772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77억원(12.2%) 증가했다. 보험상품 판매확대,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

로 늘어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했다.

금감원은 "당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에도 보험손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해외상업용부동산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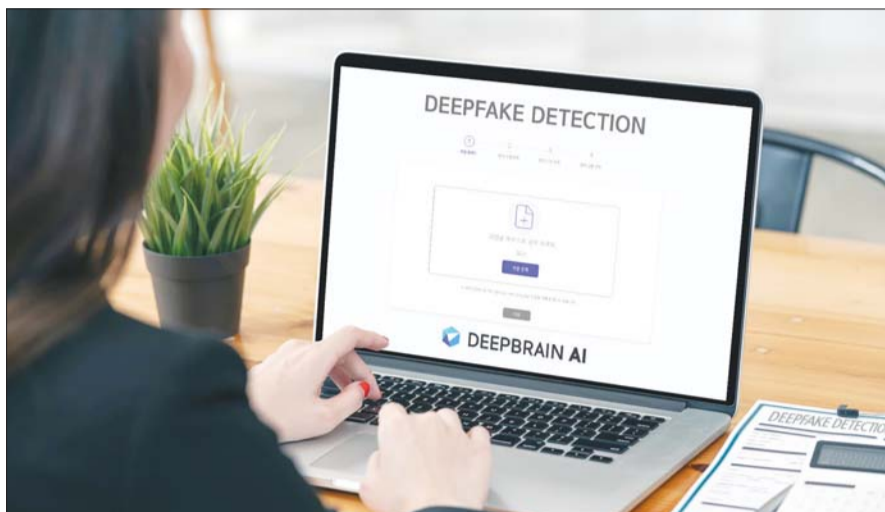
# 딥페이크 성착취물 시교란 한계… 해답은 ‘플랫폼 책임 강화’

위터마크·독풀기 등 한계 드러나  
‘플랫폼 AI 모니터링’ 강화 필요  
텔레그램·카카오톡, 상반된 대응  
美 캘리포니아주 AI 법안 발의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딥페이크 제작을 막는 데에는 픽셀 단위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에 변형을 가해 인공지능(AI)을 교란하는 위터마크 삽입 기술(독풀기) 등이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이유다.

2일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AI 교란 기술이 주목 받고 있지만 일반인의 활용이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I 교란 기술은 ▲위터마크 삽입 기법 ▲독풀기(Poisoning Attacks) 등으로 나뉜다. 위터마크 삽입 기법은 이미지나 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추가해 AI가 이를 잘못 인식하거나 오작동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저작권물의 무단 학습을 막거나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기 위해 고안됐다. 독풀기는 위터마크 삽입 기법과 달



딥브레인AI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 솔루션을 이용하는 모습.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기술을 부리고 있다. /딥브레인AI

리 이미지에 특화된 AI 교란 기술로, 올해 1월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나이트쉐이드(Nightshade)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지에 픽셀 단위의 변형을 가해 AI의 이미지 인식을 막는 것으로, 나이트쉐이드를 이용해 변형한 이미지를 AI에 입력하면 소 그림을 쥐 그림으로 인식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는 이들 기법을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술 발전에 따른 무력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무료 기술로 공개된 유일한 ‘독

풀기’ 소프트웨어인 나이트쉐이드는 2.48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은 물론 윈도우와 맥 OS에서 제한적인 GPU 조건 내에서만 구동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간단히 모바일 기기로 촬영해 SNS에 올린 사진들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활용도가 극히 떨어진다.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 관계자는 “나이트쉐이드 모델의 원리가 원본 데이터를 대적점에 있는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전혀 다른 이미지로 오염시킨다는 데 있는데, 이는 독풀기에 패

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며 “오염 과정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반대로 돌려 놓는 패턴도 금세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풀기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제시되는 방안은 플랫폼의 AI 모니터링 강화를 의무화 하는 등 책임 강화다.

이번 집단적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웹사이트나 앱이 아닌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과 각국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 이용자 보호, 전면 무료 서비스 제공을 장담하며 출발한 SNS 메신저다. 이러한 점이 결국 딥페이크 제작 범죄가 이뤄지는 모태가 됐다. 텔레그램 측은 지난달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정부에 검거된 후 “아동 성착취물 등 범죄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며 “EU의 법률을 준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모니터링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반면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등은 강력한 AI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월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한 데 이어 오픈채팅, 다음을 비롯

카카오 내 공개 게시판 서비스에 딥페이크 유통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허위영상물 배포 및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영구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까지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에 책임소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는 AI 안전 대책 법안 투표를 완료해 오는 9월 말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딥페이크 모니터링과 삭제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딥페이크 AI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AI 탐지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탐지 전문 기업인 딥브레인AI 또한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술을 부리는 가운데, 관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진위 여부 판별이 필요한 기업과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두산, 원전시장 경쟁력 강화… ‘밥캣 분리’ 성공여부에 관심 집중

주주 반대 속 원전시장 공략 재편 가속  
자금력 확보 후 생산설비 증설 전망  
2029년까지 원자로 62기 수주 목표

두산그룹이 주주와 금감원의 반대로 두산로보틱스와 두밥캣의 합병안을 철회했지만 원전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자회사 두산밥캣을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해 자금력을 확보한 다음 원전 수주를 위해 생산설비 증설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두산밥캣의 부채를 털어내면서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해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은 지난달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양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서한을 발표하며 “사업구조 개편 방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주주와 시장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지만, 금융당국과 소액주주 반대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두산그룹은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분할하는 1단계 개편안은 유지하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원자로 62기 이상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자본 마련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두산밥캣의 분할이 성사되면 차입금 7000억원 감소로 재무 지표 개선 효과를 보며 이후 비영업용자산 두산큐백스·D20캐피탈 지분 등 비영업용자산 처분으로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면 1조원가량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이끈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폴란

드,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추가 원전 수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노후화된 설비 개선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다만 두산밥캣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있다. 인적분할로 탄생할 신설회사의 가치 책정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분할합병 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가 8월 29일까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이달 25일 주주총회도 개최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또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인적분할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주식매수청구권용으로 설정한 예산 6000억원보다 청구액수가 많으면 이번 합병 계획은 무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를 비롯해 폴란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수주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한 투자금을 확보하는게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전력기기 수요 급증… 피크아웃 우려에도 ‘맑음’

전력기기 업계, 변압기 초호황 지속  
슈퍼사이클 대비 대규모 투자 가속  
반덤핑 리스크 최소화 현지 생산 확대

전력기기 업계가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피크아웃(하락 전환) 우려를 제기할 만한 요인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 시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중동의 친환경 혁신도시 건설 붐 등 여전히 전력기기 산업의 호황을 이끄는 요인이 다수라는 분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변압기 누적 수출액은 10억 32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87%에 달한다. 매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올해 실적은 지난 2010년 수출액(11억8600만달러)을 넘어 사상 최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변압기. /HD현대일렉트릭

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계속되는 호황에 피크아웃 시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우려는 이르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내 노후 설비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던 점이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30년으로 여겨지는 노후 전력망 교체 수기가 찾아와 미국 정부는 고용량 전력망 설치, 시스템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변압기의 70%는 교체 시점인 25~30여년 전에 설치됐다.

일각에서는 반덤핑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전력기기 업체는 지난 2011년 미국 반덤핑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통해 변압기 초호황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5~60%에 이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업계는 반덤핑 리스크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전력기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력기기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반덤핑이 성립하려면 국내 전력기기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단가가 내수 판가 대비 낮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에게 수익성이 가장 우수한 시장은 미국이며, 반대로 수요와 가격이 부진한 지역은 내수 시장이다. 이는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미국 수출가격이 내수 판가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전력기기 업체들은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 투자도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과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공장에 각각 272억원과 180억원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약 20%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충북 청주에 대규모 중저압차단기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증설을 통해 HD현대일렉트릭의 생산 능력은 2030년 기준 약 130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LS일렉트릭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부산사업장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2024년 9월까지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OC전기 증설이 완료되면 오는 2026년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LS일렉트릭은 국내 중소 변압기 업체 KCO전기 지분 51%를 매입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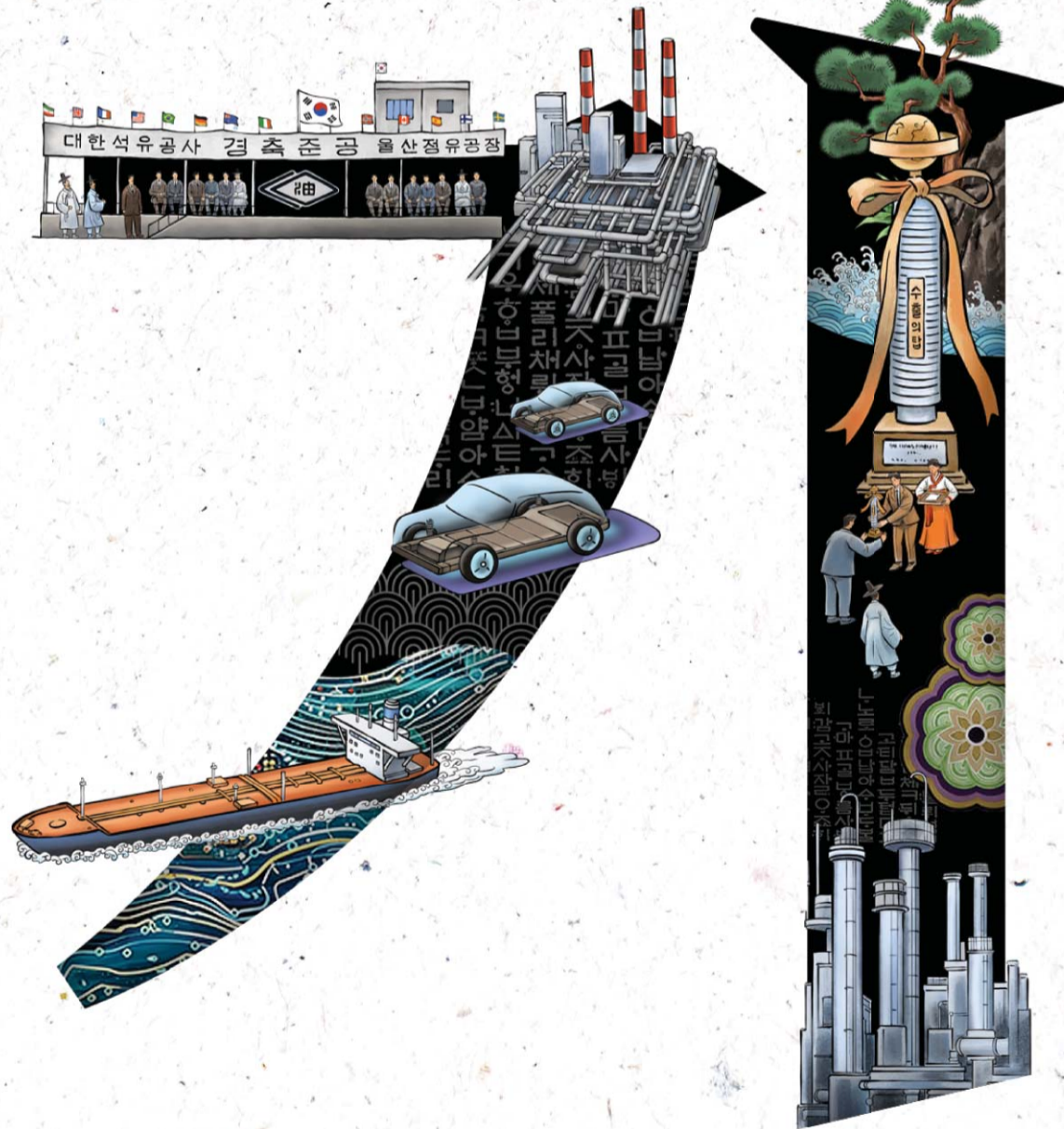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나의 도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넘어설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QR코드를 찍고  
내일의 에너지를  
확인해보세요



# ‘최장지각·尹 불참’ 국회 개원식… 우원식, ‘민생 회복’ 강조

(국회의장)

1987년 민주화 후 첫 ‘대통령 불참’ 우 의장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의정갈등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개헌 국민투표·선거제도 개혁안 마련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서 열렸다. 여야의 공방 속에 ‘지각’ 개원식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새 국회 출범 직후 열렸어야 했으나, 원 구성 협상과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추진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공방을 벌여 연기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회 개원식을 열게됐다.

개원식 방청석엔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유족, 고려인 후손,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기후소송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인,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가족, 장애인, 의료현장 종사자 등이 초청받아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 개원식 때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한 바 있어, 개원식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

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다. 답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다”면서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자리, 민생현장 어디든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처럼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미래의 주요 현안인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까지 실시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며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며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2대 첫 정기국회는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민주당-혁신당, 10월 재보선 경쟁

# 우군관계 악화일로 vs 제3지대 정당 역할… ‘의견 분분’

전남 영광·곡성군 쟁탈전 예고 혁신당, ‘지민비조’ 기류 벗어나 ‘경쟁적 협력관계’ 긍정 평가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재보선)에 나설 가운데 양당 관계가 그동안의 ‘밀월’에서 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은 독자 노선을 걸겠다는 것으로, 자칫 양당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서 내세운 당연한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네 군데 지역(전남 영광·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중 전남 영광·곡성군에서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당 지역의 재보선 경선 후보 4명을 확정했다. 여기에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장현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이 후보에 올랐다.

혁신당은 오는 4일까지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5일 면접 심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줄곧 ‘협력적 경쟁 관계, 경쟁적 협력관계’라며 양당은 우군 관계임을 보여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일각에선 혁신당에 대해 이번 전남 영광·곡성군에서의 펼쳐질 양당의 경쟁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10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를 선언했던 혁신당이 10월 재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마친 뒤 가진 기념촬영 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선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혁신당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처럼 향후 2026년 지방선거와 21대 대선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이어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둡다는 전망이 있지만, 제3지대 정당으로서 민주당과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혁신당의 10월 재보선 후보 출마에 대해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민하 평론가는 혁신당의 재보선 출마가 완벽한 제3지대 정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잠점이 있는 전략인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10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 두드러진 만큼 현재 정치 환경

에서 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 거듭나기엔 어려운 동시에 민주당과 차별화를 둔 정당이 되기엔 어려울 거란 설명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10월 재보선 이후에도 혁신당이 ‘지민비조’ 기류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는 지방선거, 대선 등 추가로 봐야 할 지점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의 10월 재보선 출마는 제3지대 정당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정당이 존속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선거에서 검증을 받고 당선자를 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강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혁신당의 호남 10월 재보선 경쟁에 대해 ‘경쟁적 협력관계’라고 평가했다.

혁신당도 민주당과의 호남 10월 재보선 경쟁이 오히려 생산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한다고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적다”며 “혁신당이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니 민주당이 긴장하고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내려고 노력한다. 이전에 없던 긍정적 변화”라고 10월 재보선 출마 취지를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혁신당의 ‘지민비조’ 선언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4·10 총선 때 혁신당이 얘기했던 건 윤석열 정권과 모든 지역에서 1대1 구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재보선 경쟁으로 인한 양당 간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일찌감치 지난 총선에서부터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협력과 생산적 경쟁 관계라고 얘기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류제성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민주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윤도현 기자 yunb0611@

## ‘尹 측근’ 김용현 인사청문회 與野, 대통령실 이전 등 공방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자체 핵무장론·계엄 준비 논란 등을 후보자에게 질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용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총암고 1년 선배이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엔 대통령 경호처장직을 맡았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에게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직경 420m 내에 위치해 ‘무방비 밀집 노출’로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약하고 실천해오신 것”이라며 “그런데, 모두 실패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해 논란이 된 정부의 계엄 준비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사안이라도 국회 과반수의원이 요구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KLPGA

LADIES ASIAN TOUR SERIES



리디아고 Lydia Ko

이민지 Minjee Lee

패티 타와타나킷 Patty Tavatanakit

박연경 Hyunkyung Park

김효주 Hyo Joo Kim

윤이나 Ina Yoon

이다연 Dayeon Lee



#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모두가 하나되는 아시아 No.1 골프축제

2024.9.26(목) - 29(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 관



방 송



장 소



기획/운영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핑크 |

# 전국 저축은행, 상반기 3804억 적자... 하반기도 '먹구름'

작년동기비 손실규모 2839억 확대  
대출영업 부진에 대손충당금 늘어  
상상인그룹 계열사만 840억 적자  
페퍼·바로저축銀 합산 1000억대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올 하반기 반등을 관측했지만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 분석이다. 여신축소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합산 순손실은 3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965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2839억원 확대됐다. 대출영업이 부진했던 데다 연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962억원 증가하면서 손실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간 저축은행의 여신잔액과 수신잔액은 각각 3.1%, 2.8%씩 감소했다.

상반기 업계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곳은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각 550억원, 290억원씩 순손실을 기록해 총 840억원의 손실을 나타냈다. 전체 저축은행 손실액의 22.08%를 차지한다.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지 못했다. /뉴시스

상상인저축은행의 손실 배경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율이 오르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상상인저축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4%다. 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14.0%로 연간 3.35%포인트(p) 상승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영업환경도 녹록치 않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IBK저축은행이 손실규모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상반기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순손실은 372억원, IBK저축은행은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밖에 페퍼저축은행과 바로저축은행이 각각 643억원, 4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두 저축은행의 합산 순손실만 1000억원 이상이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 79곳 중 18곳이 순손실 100억원을 초과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건전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며 "업계 유동성 비율이 평균 200%를 넘어선 차주의 예금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했다.

자산순위 상위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에쿠온저축은행)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603억원이다. 전년 동기(580억원) 대비 3.9% 증가했다. 에쿠온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32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56억원, 83억원씩 증가했다.

반면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순이익은 감소했다. 상반기 OK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3억원이다. 전년 동기(535억원) 대비 86.3% 쪼그라들었다. 1분기 149억원의 흑자를 달성했지만 2분기에 7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웰컴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3억원으로 35.7% 줄었다.

업계에선 저축은행의 연내 흑자전환이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공격적인 영업을 지양하면서 리스크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우선과제는 부동산 PF발 부실채권 매각이다.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면 그동안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순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유동성비율은 232%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100%) 대비 132%p 높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5%로 법정기준 대비 13.54%p 초과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안정성 종합지표인 BIS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시점의 위기대응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안정성 종합지표인 BIS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시점의 위기대응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안정성 종합지표인 BIS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시점의 위기대응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상상인저축 등 4곳 자본조달계획 제출 요구

BIS비율, 권고치 아래로 떨어져  
금융당국 유상증자 계획 등 접수

금융당국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 자본비율이 미달된 저축은행에 자본조달 방안을 요구했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라온, 바로저축은행 등 4곳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실적 결산 결과 상상인·상상인플러스, 라온, 바로저축은행 등 4곳의 BIS비율이 권고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IS비율이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다. 기업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0.45%다. 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9.72%, 라온저축은행과 바로저축은행이 각각 9.01%, 10.67%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정한 BIS 비율 마지노선은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의 경우 7%다. 1조원 이상의 경우 8%를 넘겨야 한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금감원은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3%포인트 버퍼'를 더해 권고 기준(11%, 10%)을 두고,

BIS 비율이 아래로 내려가면 비상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자본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곳 모두 권고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자본조달계획안에는 ▲자본확충 방안 ▲유상증자 계획 ▲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이 떨어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하면서 권고치 이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이달 3.8만 가구 분양... 전체 물량의 75%가 수도권

청담르엘 149가구 등 서울 2237가구  
인천 5116가구, 지방 9301가구 공급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753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만 3538가구) 대비 177%가량 많은 물량이다.

2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청약 등 제외)은 43개 단지, 총 3만 7532가구가 조사됐다. 전월(1만 6149가구)과 비교하면 약 23%(21383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8231가구, 지방은 9301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75%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2만 878가구가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인천 5116가구 ▲서울 2237가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단지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이 눈길을 끈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을 재건축해 분상제 아파트로 공급되는 '청담르엘' 149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중앙동 지어지는 '해링턴스퀘어신흥역'이 총 세대수 2212가구(분양 1972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이밖에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세대)' 등의 대단지 공급이 눈에 띈다.

지방에서는 ▲대구 3181가구 ▲대전 1614가구 ▲강원 1229가구 ▲부산 1214가구 ▲충북 937가구 ▲울산 651가구 ▲전남 475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직방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5.2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82.1대 1)이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는 1순위 평균 90.28대 1의 경쟁

률을 기록하며 서울 청약경쟁률 평균을 끌어올렸다. 이어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5.7대 1),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6.2대 1) 등 단일 공급된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한편 8월 분양물량이 많았던 경기도 평균 1순위 경쟁률은 0.9대 1을 나타냈다.

업계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던 사업장에서도 분양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따라서 이달 분양시장은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늘어난 물량만큼 수요자들의 새아파트 관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지만 단지별 청약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량이 많아질수록 예비청약자들의 선택의 폭은 다양해지고 가격과 입지 경쟁력을 따지는 수요자들의 욕망거리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 DL이앤씨,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수주

강남 도곡동 위치, 공사비 4385억  
클래식 커튼월 등 최초 적용

DL이앤씨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은 아파트 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385억원이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지난 7월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에 이어 강남권에서 연이은 성과를 냈다.

DL이앤씨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을 '아크로 도곡'으로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만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도곡에 클래식

커튼월과 필라스터·폴로네이드 외관 디자인을 강남 최초로 적용한다. 가든 컬렉션을 통한 단지 내 프리미엄 조경부터 32개소의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 가구당 2.0대의 100% 확장형 주차 공간 등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내구성 향상 외벽 페인트 등 DL이앤씨의 차별화된 기술력도 적용한다.

아크로도곡은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사업이다. 양재천과 매봉산 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형마트는 물론 숙명여중·고와 중대사대부고, 대치중과 같은 풍부한 생활 및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하나은행 탄소 배출량 80% ↓ '고그린 플러스' 가입

하나은행이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사용해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고그린 플러스(Go-Green Plus)'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고그린 플러스는 국제특송기업 'DH

L'이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서비스로, 회원사가 지속가능 항공유 구매를 위한 추가비용을 일부 부담하면 기존 항공유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는 회원사 참여형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외환 및 수출입 업무에 강점을 가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특송업체를 이용한 수출입 선적서류의 발송이 시중은행 중 가장 활발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항공업계, SAF 도입 본격화... 운임인상 효과 이목집중

(지속가능항공유)

유럽·美 등 글로벌 의무화 추세  
일반유 가격 2~3배... 운임 영향  
업계·정부 “급격한 변화 없을 것”

지속가능항공유(SAF)의 도입으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월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반 항공유보다 3배 비싼 SAF의 도입이 공식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항공권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국산 SAF의 상용 운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는 2024년 하반기 국제선 일부 노선에 주 1회 SAF 1% 혼합 급유 방식으로 운항하기로 했다.

SAF는 원가가 일반 항공유보다 2배 비싸고, 공급 가격 또한 2.5~3배 수준이다. SAF는 기존 항공유와 달리 폐식용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SAF 상용 운항 취항 행사’를 열고 국산 SAF 적용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 사진은 좌측부터 오중훈 SK에너지 사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스오일 대표이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우측 두번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유·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선 해당 원료를 가공할 별도의 대량생산 체계가 필요하다. 연료비는 항공사의 매출원가에서 30~45%를 차지하는 만큼 항공권 가격에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저렴한 항공권 가격으로 경쟁하던 저비용항공사(LCC)는 항공권 가격을 올릴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는

‘가성비’ 이미지가 강했기에, 운임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감이 크다.

소비자와 항공사 모두 부담은 크지만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 유럽은 2025년부터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최소 2%의 SAF 혼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미국 또한 2050년까지 미국 항공유 수요의 100%를 SAF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도 SAF 공급 가능 공항 시설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항공산업 특성상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항공권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은 작다. 국토교통부가 상한선을 두고 항공운임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항공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항공권 가격 인상을 대비해 SAF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유사와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SAF 상용운항 개시 ▲2026년 민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 촉진 ▲2027년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 등 순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SAF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SA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사들도 자사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SAF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에어부산은 2025년 1분기 중 SAF 상용운항에 나설 계획이며, 현재는 SAF 공급을 위한 계약 협상 중이다. 에어서울은 의무 기간이 아닌 만큼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SAF 혼합 급유가 의무화되는 2027년, 모든 항공편에 SAF 1% 혼합급유를 시행하면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성 기자 iunmids@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 청사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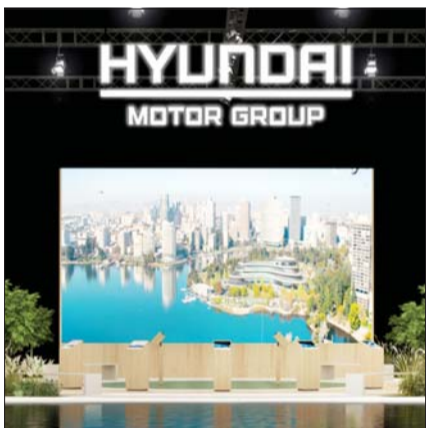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첫 참가  
개인형 모빌리티 ‘DICE’ 등 전시

현대차그룹이 그룹 역량을 한데 모아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제시한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24 (World Smart City Expo Korea 2024, WSC E)’에 처음 참가해,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WSC E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시작돼 올해로 8회째 열린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최신 기술, 정책 및 솔루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대 글로벌 엑스포다.

지난해에는 총 70개국 320개사가 참가해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등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현대차그룹 부스 조감도 /현대차그룹

미래 도시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했다.

올해는 ‘더 나은 삶이 여기에(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체험 및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WSC E에서 공간, 모빌리티, 에너지 등 도시의 3가지 핵심 영역에 기술이 조화롭게 연결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약 900㎡(273평) 규모의 전시관을 ▲교통 ▲물류, 로보틱스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세 구역으로 나눠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교통존에는 개인형 모빌리티 ‘DICE(Digital Curated Experience)’, 차세대 기체 ‘S-A2’, ‘SPACE-Mobility’, ‘셔클’ 등이 전시됐다. 개인형 모빌리티 ‘DICE’는 AI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물류, 로보틱스존에는 물류 모빌리티 ‘CITY POD’, ‘주차 로봇(Parking Robot)’, ‘이지 스왑(Easy Swap)’ 등이 전시됐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IFA서 최고 효율 가전 뽐낸다

ErP 에너지등급 이상 제품 전시

LG전자가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춘 생활가전 신제품을 유럽에 공개한다.

LG전자는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유럽의 ErP 최고 에너지등급 기준보다 효율을 높인 고효율 가전 신제품을 전시한다.

LG 드럼 세탁기 신제품은 유럽의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보다 55% 효율이 더 높다. 단적으로 이 제품에 탑재된 AIDD모터는 세탁물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최적화된 작동으로 에너지 소비와 옷감 손상을 줄여준다.

건조기 신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A+++’보다도 효율을 26% 더 높여 유럽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

량이 가장 적다. AI 건조 모드는 세탁물 종류와 습도에 맞게 설정해 건조 시간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LG 냉장고 신제품은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25% 효율이 뛰어나다. 식기세척기도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20% 효율을 더 높였다. 새롭게 선보인 LG 인스타뷰 AI 오브는 에너지 효율 등급 A++를 충족한다.

특히 LG전자는 IFA 2024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스마트 그린 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를 통해 고효율 가전을 제어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에너지 고효율 가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SK하이닉스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신입·경력 사원을 채용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반도체 유관 경력 2~4년차 대상의 ‘주니어 탠런트’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자는 SK 종합역량검사(SKCT)와 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입사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까지 서울대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에서 석박사 대상 채용 행사인 ‘테크 데이 2024’를 진행하며 별도로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김서현 기자

## 삼성전자, 범용 강판 ‘UL솔루션즈’ 인증

포스코 공동개발... 냉장고 등 적용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함께 재생 소재 함량을 높인 범용 강판을 공동 개발해 UL 솔루션즈로부터 ECV 인증을 받았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제품의 환경성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부여하는 환경마크다.

이번 범용 강판은 포스코의 전로 공정에서 재활용 소재를 다량 용해하는 기술을 활용해 재생 소재 함유율을 UL 솔루션즈가 인증하는 12%까지

높였다. 전로 공정은 고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범용 강판은 유리질 유약을 도포하여 고온에서 구워내는 범용 코팅에 적합한 강판으로, 조리기기 내부 조리실 등에 사용된다. 앞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빌트인 오븐·쿠커 오븐·전자레인지 내부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포스코와의 협업을 확대해 내년부터 냉장고 도어·세탁기 세탁통·식기세척기 내부 등에 재생 소재가 함유된 스테인리스 강판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 기아

‘더 2025 쏘렌토’ 출시

대한민국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가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 경쟁을 한층 강화했다.

기아는 쏘렌토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쏘렌토’를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 2025 쏘렌토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고급 안전·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신규 사양인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햅틱) 및 선바이저 LED 조명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를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기본화해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또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 운영되던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타입 아웃사



기아 더 2025 쏘렌토 (위)전측면 (아래)실내

이드 도어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첨단 편의 사양을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양성운 기자

# LS그룹, 소외계층·재해재난 지원 등 글로벌 사회공헌 실천

창립 20주년 맞아 미래세대 후원 확대 행사 대신 어려운 이웃에 기부활동 韓-베 가정 위한 교육·문화지원 강화

LS그룹이 베트남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일 LS그룹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진행했다.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LS그룹 2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 지역 사회 내의 희귀질환 아동 20명을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LS그룹은 지난 5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을 돕는 교육·문화 공인 'LS 드



지난 5월 8일 베트남 하이퐁에서 열린 'LS 드림센터' 개소식에서 (앞줄 왼쪽 세번째) 안원형 LS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그룹

림센터'를 하노이 센터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개소했다. 'LS 드림센터 하이퐁'은 한·베 가정을 위한 미취학아동 돌봄 프로그램과 가족 심리상담,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한다. 컴퓨터·IT 교육과 영어 교육도 제공한다.

LS그룹 관계자는 "베트남 전기·전력 분야에서 1등을 하는 LS가 베트남의 교육 인프라 개선에 이바지하여 서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에 추가로 문을 연 LS 드림센터가 한·베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교두보 역

할을 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LS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대학생과 LS 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약 1000여명의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선발 및 사전교육하여 파견을 실시해 왔다.

국내에서는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2013년에 시작해 올해로 20회째 이어오고 있다.

LS그룹의 각 계열사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다.

LS전선은 폐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3년 LS전선은 고객이 사용한 폐 목재 드럼을 재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온드럼'(ON DRUM)을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LS일렉트릭은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23년 5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LS타워에서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를 창단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런치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린 보이스 합창단은 중증 발달장애 음악인 8명으로 구성됐다.

LS엔트론은 지난 2022년 말, 코피온과 함께 베트남 뚩옌광성 반푸 초등학교에서 '5기 해피 글로벌 봉사단'을 진행했다. 봉사단원들은 음악, 미술, 체육, 한국어 관련 교육 봉사나 낚은 벽면 페인트칠, 벽화 그리기 등 노력 봉사와 K-POP 노래, 춤 등 문화공연을 진행했고 교육 기자재용 TV 등을 기부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전국 21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매년 1억 500만 원을 후원하는 '희망충전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LGU+

### Z세대 위한 멤버십 개선

LG유플러스가 Z세대들과 협업해 멤버십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다.

LG유플러스는 대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협업 프로젝트 TF를 꾸려 참여형 멤버십 프로그램을 3개월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46명의 대학생 고객이 TF를 꾸려 신규 멤버십 혜택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LG유플러스는 실제 멤버십 혜택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TF 구성원들은 사전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LG유플러스와 함께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TF와 함께 3개월간 ▲LG트윈스 제휴 유폴투볼 경기 이벤트 ▲수험생을 위한 상영 종료 영화 재상영 및 응원 프로모션 ▲보드게임 카페 제휴 혜택 ▲신규 멤버십 고객 웰컴키트 제작 등 Z세대의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멤버십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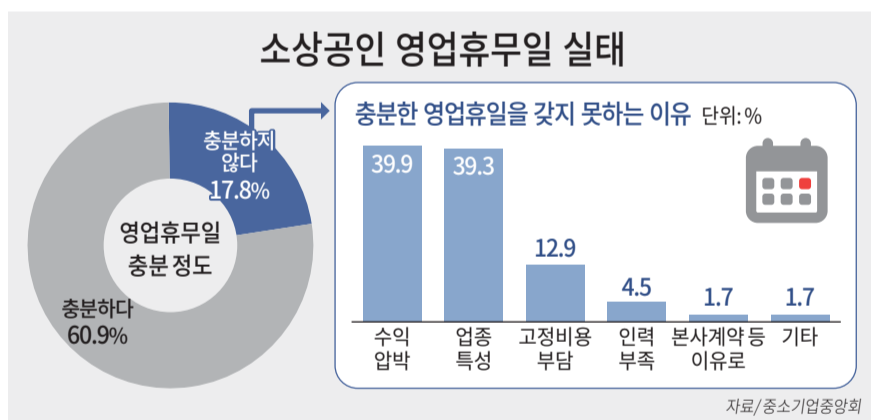
## 소상공인 “휴무 충분치 않다”... ‘수익 압박’ 등 이유

중기중앙회, 1000명 대상 조사  
전반적 노동강도 10점 중 5.92점  
“소규모 소상공인 맞춤 지원 필요”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워라벨(work-and-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현재 영업 휴무일 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워라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내놓은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0.9%은 현재 영업 휴무일 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휴무일이 '없다'(11%)거나 '충분치 않다'(17.8%)는 답변은 종사자

수가 적거나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에서 많았다.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 압박'(39.9%), '업종 특성'(39.3%) 등이 주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사업에 대한 전

반적인 노동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92점으로 '보통'이었다.

하지만 종사자 수가 1~2명(12.9%), 매출액이 1억원 미만(15.3%)인 소상공인은 사업에 대한 노동강도가 '매우 강하다'(10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일과 여가활동 시간의 균형 정도도 평균 5.40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10.2%는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0점)고 응답했다. 이는 ▲1억~5억원 미만(4.0%) ▲5억~10억원 미만(2.8%) ▲10억원 이상(2.0%)인 소상공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OCI,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인산' 공급

핵심소재 기업 OCI가 국내 인산 제조사로서는 최초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인산 공급자로 선정됐다.

OCI는 SK하이닉스의 강도 높은 품질 테스트를 거쳐 반도체 인산제품 공급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OCI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반도체 인산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 중 하나로,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공정에 사용된다. OCI의 반도체 인산은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까지 모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범용 소재로 HBM의 성장 및 반도

체 시장 회복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CI는 지난 2007년 반도체 인산 사업에 진출한 이후, 현재 연간 2만 5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SK이파운드리, DB하이텍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7년간 반도체 인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내 M/S 1위를 유지 중이다. OCI는 이번에 SK하이닉스를 신규 고객사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모든 반도체 제조사에 인산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 /차현정 기자

## 효성첨단소재, 중서 '탄섬' 우수성 알린다

HS효성그룹의 효성첨단소재가 아시아 최대 국제 복합재료 박람회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의 우수성을 알린다.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1/4이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섬유로 자동차, 에너지, 레저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 첨단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오는 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China Composites Expo 2024)'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첨단소재는 수

소차용 고압용기, 자동차휠, 스포츠용품, 전자저프레임, 라켓, 전기차용 시트크로스멤버(Seat Cross Member, 시트 프레임과 자체 바다 프레임 고정 부품) 등 '탄섬'으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들과 미팅을 진행한다.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는 상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국제 복합재료 산업 박람회로 지난 1988년 첫 개최 이후 성장을 거듭해 복합재료 분야 최고 수준의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다. /차현정 기자

## 한화

### 폴란드서 '장보고' 전시 프랑스·독일, 수주 경쟁

한화가 최첨단 잠수함인 '장보고-III(KSS-III)'를 앞세워 프랑스·독일 등과 폴란드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방산3사는 이달 3~6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동유럽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다.

폴란드의 차기 잠수함 사업(오르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잠수함을 전시한다.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장보고-III'는 중여뢰와 대함·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한 어뢰 발사관, 탄도 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대가 기본 장착됐다. 한화오션은 잠수함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술을 폴란드 업체들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MRO 현지화'도 검토 중이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뛰어난 프랑스의 나발그룹과 독일 티센크루해양시스템(TKMS) 등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30년간의 잠수함 실전운영 및 정비, 운영 등의 기술적 장점을 부각시킨다.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장은 "장보고-III는 입증된 기술력과 뛰어난 성능으로 폴란드 안보환경에 최적화됐다"며 "폴란드 해군의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제13회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10. 18.(금) - 10. 22.(화) / 5일간  
잠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통합의학 메카 장흥!  
건강한 삶의 장을 열다.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문의처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061-860-6263, 6266

# 금리인하 기대감에 변동성 ‘쑥’... 안정적인 리츠 ETF 관심

리츠TOP10 지수, 3개월간 3% 올라  
ETF 3개월 평균 수익률 9.80%

금리 인하,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져  
금리 인상 타격 받은 자산 빠른 회복  
대체 자산·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인 리츠(REITs·부동  
산투자회사) 상장지수펀드(ETF)에 투  
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개월 동안  
‘KRX 리츠TOP10 지수’는 3%가량 올  
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69%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양호한 성적이다.

리츠ETF의 수익률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리츠12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9.80%로 집계됐다. 개별  
ETF로는 KODEX 미국부동산리츠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리츠ETF 이미지.

(H)와 TIGER 미국 MSCI리츠(합성 (17.29%), ACE 싱가포르리츠 (10.85%), RISE 글로벌데이터센터리츠(합성)(10.73%), 히어로즈 글로벌리츠(합성)10.35%) 등도 두 자릿

수 대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PLUS K리츠(7.29%),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액티브(6.49%),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5.20%) 등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들도 리츠 ETF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들은 3개월간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를 371억 원 순매수했으며 KODEX 일본부동산리츠(H)(26억원) KODEX 미국부동산리츠(H)(22억원) 등을 매입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이익 등의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상품 특성상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한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리츠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조달 비용이 감소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과도하게 높았던 실질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자산일수록 빠른 회복을 보일 수밖에 없어 최근 리츠·부동산 등 대체자산, 아시아 통화 강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리츠 ETF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리츠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금리인하가 압박함에 따라 리츠는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돼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9월 징크스’ 깨나... 잇단 글로벌 이벤트 주목 삼성증권, ‘IRP 연금이전 사전예약’ 혜택

9월, 美 변동성 큰 시기에 약세 보여  
올해는 변수 많아 다른 양상 기대  
투자자, 안정적인 ‘배당주’ 관심

통상적으로 9월은 투자자들에게 ‘증시가 부진한 달(9월 징크스)’로 여겨지지만, 올해 9월은 대내외적인 글로벌 이벤트와 금리 인하 영향으로 증시가 상승곡선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월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약한 시기라는 통계가 있다. 코스피는 2021년 이후 평균 -6.82%의 수익률로 3년 연속 하락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증시도 2000년 이후 9월 평균 수익률은 -1.65%로 연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FICC리서치부장)은 “2000년 이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9월 상승 확률은 45.8%로 연중 최저 수준”이라며 “코스피도 9월 평균 수익률이 -0.92%로 연중 두 번째로 낮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9월은 통상적으로 자본시장에서 ‘9월 효과’, ‘9월 징크스’, ‘잔인

한 9월’ 등으로 불린다.

증권가에서는 9월 증시가 약세인 대표적인 이유를 시기적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미국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4월에 소득세 납부, 9월에는 법인세 납부 시점으로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유대교 달력으로 1월 1일인 ‘로쉬 하샤나’가 다가오고 있어 유대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해당 일이 포함될 구간은 유대인 투자자들에게 연말로 여겨지는 시기로, 수익률 확정을 위한 차익 실현과 펀드 복클로징(회계장부 마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증권가에서는 많은 펀드 매니저가 회계 연도 말이나 4분기를 준비하며 9월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9월은 변수가 많아 통상적인 증시 하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미국 대선 토론회가

열리고, 18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0일에는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27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이 개최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9월 증시 향방을 눈여겨보며 안정적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밸류에이션이 좋은 금융주(하나금융지주 1007억원, 메리츠금융지주 838억원, 우리금융지주 355억원 등)를 매수했다. 이 외에도 대표적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KT&G와 SK텔레콤 등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추세를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시기에 고배당주가 강세를 보였다”며 “9월은 고배당주의 달로 통계적으로 성과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퇴직연금 실물이전’ 내달 15일 시행

삼성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이전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 그대로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RP 연금이전 사전예약’ 이벤트는 삼성증권 IRP 계좌로 타사 IRP 이전 시 경품을 지급하는데 총 두 가지로 진행된다.

첫번째 이벤트는 다음달 14일까지 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이전을 신청하고 SMS 마케팅에 동의하면 추첨을 거쳐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이벤트는 실물이전제도가 시행되는 다음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첫번째 이벤트에 참여했던



삼성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이전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IRP를 삼성증권 IRP로 1000만원 이상의 자산(현금 및 실물자산 포함)을 이전 완료하면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m POP)’을 참고하면 된다. /원관희 기자

## 거래소, UAE·英 런던서 ‘밸류업’ 홍보 박차

행사 개최·투자기관 미팅 진행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정은보 이사장(사진)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영국 런던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글로벌 거래소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일정을 떠났다고 2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오는 5일 영국 런던에서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거래소와 CLSA 코리아증권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과 정책당국의 세계지원 내용 등을 상



세히 설명하고 시장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및 기업금융(IB) 등 주요 투자기관의 한국증시 담당자 30~40명을 초청했다.

이와 별도로 런던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증권사, 운용사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가지고, 현지에서도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기관과 직접 일대

일 미팅을 진행해 한국 증시의 밸류업 모멘텀과 상장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이번 UAE·영국 방문을 계기로 두바이상업거래소(DME) 이사장과 세계거래소연맹(WFE) 최고경영자(CEO)와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 시장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거래소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도쿄·뉴욕, 6월 홍콩·싱가포르에 이어 영국 런던(9월)에서도 밸류업 세일즈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주요 금융허브에 소재한 100개 이상의 투자기관과 직접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수익 투자자 종목 공유’ 기능 추가

대신증권은 자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대신 사이보스’와 ‘크레온’ 앱을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수익률 높은 투자자의 선택’이다. 대신증권에서 거래 중인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률 상위 1000명의 종목을 공유해준다. 지난주 보유하고 매매한 종목과 현재 매매 중인 종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MTS 홈화면은 국내·해외·나의투자세 탭으로 나누고,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국내’와 ‘해외’ 탭은 각 시장의 주요 지수, 종목, 환율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장 예정 종목과 공모주 청약·배정 등의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의 투자’ 탭은 홈 화면에서 바로



대신증권이 모바일 앱에 새로운 기능과 화면을 추가한다. /대신증권

접속할 수 있어 개인별 투자 정보의 직관성을 높였다. 미체결, 평가금액, 대출 현황, 입출금 내역과 금융소득 조회 등 세금 관련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유한 모든 계좌의 평가 금액을 합산해 표시해 자산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원빈 대신증권 플랫폼솔루션부장은 “모바일 사용자의 투자정보 확대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디지털 교육 몰입도 극대화... 동남아 넘어 글로벌 정조준”

**도전! 스타트업UP**  
에듀테크 기업 ‘엘리스그룹’  
김재원 대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솔루션과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를 제공하며 ‘글로벌 B2B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토종 스타트업이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엘리스그룹 김재원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김 대표가 공동창업자들과 2015년 말 설립한 엘리스그룹은 국내를 넘어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공략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싱가포르에 법인도 설립했다.

엘리스그룹은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엘리스스쿨’, 취업준비생과 재직자를 위한 ‘엘리스트랙’, 기업·기관 등 B2B 고객을 위한 ‘엘리스엔터프라이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가운데 ‘엘리스LXP’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AI활용 온·오프라인 교육·솔루션 국내 넘어 싱가포르·인니 시장 진출

올인원 AI교육 플랫폼 ‘엘리스LXP’ 기업·기관 4100곳, 이용자 193만명

이동형 모듈러데이터센터 ‘PMDC’ 냉각 최적화·전력 최소화 등 장점

김 대표는 2일 “교육 현장이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수율을 높이고 몰입도를 극대화할까를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위해 ‘엘리스’가 탄생했다”면서 “엘리스LXP는 몰입도 높은 비대면 학습 환경과 교육생 학습관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올인원(all in one) AI 교육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엘리스LXP는 ▲온라인 인터랙티브 학습 환경 ▲올인원 라이브 강의실 ▲로그인만 하면 코딩이 가능한 웹 기반 학습 환경 ▲교육성과를 높이는 교육생 관리 시스템 ▲교육생 맞춤관리 질의응

답 솔루션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현재 엘리스LXP를 도입한 곳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대기업과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 등 약 4100곳에 달한다. 이용자도 193만명을 넘었다.

김 대표가 창업한 엘리스그룹은 2015년 창업 이후 지난 8월 현재까지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는데 대부분이 엘리스LXP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이젠 연 매출 1000억원에 도전할 때”라면서 활짝 웃었다.

동남아시아 공략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함께 넘보고 있는 것도 엘리스LXP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엘리스그룹은 엘리스LXP를 좀더 효율적으로 구동하기위해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한 PMDC도 개발했다.

김 대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GPU(그래픽처리장치)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AWS(아마존웹서비스)와 같은 기존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는 가격이 비싸고

전력도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면서 “우리가 컨테이너 형태로 개발한 PMDC는 소형이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GPU에 최적화된 냉각기능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대학 연구실 등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스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벤처투자자회사 버텍스그룹 등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0년엔 삼성벤처투자, LB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알토스벤처스로부터 총 105억원의 시리즈B 투자를 받기도 했다. 엘리스그룹의 누적투자유치금액만 2016년부터 진행한 시드부터 최근의 시리즈C까지 총 335억원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독자경영 본격화

이사회서 임종윤 선임안 등 부결  
“전문경영인 체제, 목표이자 비전”

한미약품이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 이사(사진)를 중심으로 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의 단독대표이사 선임 안건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교체 및 동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이사회 멤버이자 감사위원장인 김태윤 사외이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한미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경영을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비전”이라며 “오늘 이사회 결의는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임직원 모두가 세계 최고의 R&D 중심 제약회사를 지향하는 한미약품이 안정적 경영을 이루고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개최는 임종윤 사내이사



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그동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고, 법무팀 등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 등 ‘독자 경영’을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해 임종윤 사내이사는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다.

또 임종윤 사내이사는 박재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임명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박재현 대표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사회를 통해 임종윤 사내이사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재현 대표의 거취에도 변동사항이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이번 이사회 결의를 시작으로 지주회사와 차별화한 독립 경영을 강화한

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글로벌 한미’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매진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이슈와 무관하게, 한미약품이 현재 추진 중인 신약개발, 국내 영업, 수출 등 다양한 사업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지속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 업계는 이번 박재현 대표의 독자 경영 선언을 한미약품 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단계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자 연합은 우호 지분까지 더해 한미약품 그룹 지분의 과반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한미약품 그룹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보다 우세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서 관계사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Vision 50-50’ 선포식을 개최했다. 프로그램 중 조직문화 토크쇼에 참여한 경동나비엔 김종욱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동나비엔

## “글로벌 톱티어 생활환경 솔루션사 도약”

경동나비엔 ‘비전 50-50 선포식’ 핵심전략 ‘3P 옵티마이즈’ 설정 4300억 투입 공장 10만 평 확장

경동나비엔이 ‘3POptimize’를 미래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제품(Product), 프로세스(Process), 조직운영(Personnel)의 최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Optimize’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한 생활환경 파트너(Optimize Living & Environment)’라는 비전도 구체화했다.

경동나비엔은 경동원 등 관계사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Vision 50-50’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Top Tier 생활환경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선포했다.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비전선포식은 2028년 경동나비엔 창립 50주년, 2031년 경동원 창립 50주년을 각각 앞두고 50년으로 나아가는 비전 달성과 각오를 다지기위해 마련했다.

새 BI에는 불, 물, 공기와 흙 등 필수 요소를 다루는 차별화된 기술로 온도,

습도, 청정 등 고객의 일상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최적의 생활환경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더 나아가 콘덴싱, 인공도양을 이용한 옥상녹화 등 친환경 기술력으로 인류의 미래에 필요한 최적의 지구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뜻도 포함했다.

경동나비엔은 생산기지인 경기 서탄 공장을 확장하며 ‘3P Optimize’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3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10만 평으로 공장 규모를 확장하는 한편, 현재 200만 대 수준인 생산량을 439만 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로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공장을 의미하는 ‘등대 공장’ 등재도 업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김종욱 대표는 “비전선포식이 이제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경동나비엔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한 전략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글로벌 톱티어(Top Tier) 생활환경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온라인 e쿠폰서비스 첫 감소... 티메프 영향

통계청, 7월 온라인쇼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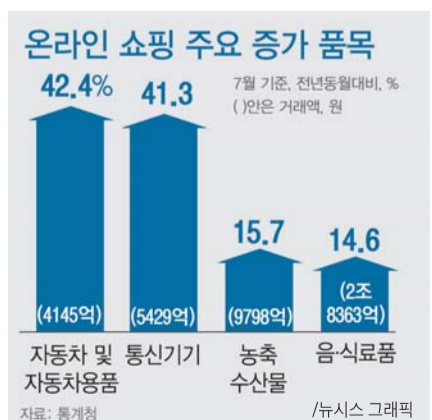
티몬·위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e쿠폰서비스(무료 또는 할인 쿠폰)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4%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음·식료품(14.6%),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 등에서 증가했으나 e쿠폰서비스(-31.0%)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른바 ‘티메

프 사태’에 따른 위축으로 풀이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수가 1만3000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e쿠폰서비스가 많이 줄었다”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감소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에 반해 음식서비스 거래액(2조



5187억 원)은 역대 1위”라며 “온라인 쇼핑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인데 음식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달에는 최대 거래액을 찍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내년 예산안 0.7% 늘어난 1.1조 'R&D' 확대해 스마트농업 가속

농진청, 연구개발 분야 4.7% 증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등 투자  
AI 기반 스마트 과원 구축 개발

농촌진흥청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이 2024년에 비해 0.7% (73억 원) 늘어난 1조1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R&D)분야가 6097억 원으로, 전년(5823억 원) 대비 4.7% (274억 원) 증가했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 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플랫폼 구축(올해 63억 원→내년 70억 원)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53억 원→7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물·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통합정보 서비스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수량성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수입대체·수출용 한국형 장립종벼 품종 개발과 용도별 및



농촌진흥청 관계자 등이 지난 5월29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마늘 수확 기계화모형 현장 전시회'에 참석해 개선된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농진청 홈페이지 갈무리

축형 밀·콩 품종 및 논콩의 침수피해 방지 기술 등 식량작물의 재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67억 원을 투자한다. 국산 밀 생산 확대의 걸림돌인 이모작 재배 제약 요인 해결과 품질향상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한다.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육성 및 농산물 생산·수확·출하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615억 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별 품종 육성 등에 투자(17억 원→31억 원)를 늘릴 계획이다.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농업기초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

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67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에 대하여 복합작업·다품목 범용화 등 편안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사업(17억 원→44억 원)을 확대한다. 또 농과계 대학과 협업을 통해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R&D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24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5년도 예산안을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지원,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농기자재 730만弗 규모 수출협약 성과

농어촌공사,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산 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시장 개척에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사로 구성된 개척단은 지난달 26~31일(현지시간) 호치민을 찾았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농산업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지에서 30개 유망 구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104건의 일대일 상담이 이뤄졌다. 총 7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14건이 현장에서 체결됐다. 시장개척단은 또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와의 면담으로 현지 농업 정책과 인증 절차를 파악하고, 농기계·시설자재 시장 환경 세미나, 기업방문·상담, 유통시장 분석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은 상담회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절차와 현지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견에 앞서, 공사는 베트남 정부의 '농경지 70% 유기농 전환 계획' 등 정책 동향과 시장 특성을 사전에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이공계 핵심연구자 3301명에 825억 지원

교육부, R&D 예산안 5958억 편성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하고 총 82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교육부 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5958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견줘 약 811억원 늘어난다.

◆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

이번 지원은 '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세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의 총 2172명이 선정됐다. 석사과정생은 1년간 1200만원,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총 5000만원을 학위 논문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은 박사 후 연구원에게 초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수·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총 566명이 선정됐다. 이 중 국외 연수자 220명은 1년 동안 6000만원, 국내 연수자 346명은 최대 3년까지 총 1억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는 박사 후 연구원이 우수 전임 교원과 멘토-멘토를 이뤄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214팀 563명이 뽑혔다. 팀당 최대 연 3억원을 3년간 지원받으며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내년 교육부 R&D 예산안, 전년 대비 15.8%p 증가

아울러 교육부는 '2025년 교육부 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595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5147억원에 비해 약 811억원 (15.8%)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글로벌랩'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미래도전 연구지원', '글로벌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비전임 교원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이현진 기자 lhj@

## 한전, 고졸채용 확대·경력개발 지원 나선다

'고졸 체험형 인턴' 신규 도입  
2027년까지 고졸 3~4배 확대  
청년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 '고졸 체험형 인턴'을 신규 도입하는 등 고졸채용을 3~4배 확대한다. 한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력중심 사회 문제 해결과 능력 중심의 청년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고졸 채용 확대와 경력개발 지원이 골자다.

한전은 우선 2025년~2027년까지 향후 3년 간 고졸 제한채용 비중을 이전(2022~2024년) 대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총 200개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간 한전은 고졸 입사자에게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고, 재학생 맞춤형 특화 채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있는 고졸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올해는 하반기부터 고졸 인재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국전력 사옥.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항공 촬영. /뉴시스

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우수 인턴에게는 공채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한전은 특히 단순히 채용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입사 후 대학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해 한전 맞춤형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 학과'를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신설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학사 취득 외에도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산업기사·전기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직원연수원인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고졸사원 직무특화 과정 등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 선배 직원과의 멘토링, 신입사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고졸사원의 안정적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다.

김동철 사장은 "다가오는 에너지신 시대에는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보다 그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검증된 실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이 교육 시스템 혁신과 능력있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자립으로도 이어져, 국가적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혼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우수 기자 hys@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부, 내달 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

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김대환 기자 kdh@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전 세계에 알린다”

부산시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올해 주제 ‘무탄소 에너지 시대’ 11개 콘퍼런스·537개 기업전시

부산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민간 13개 기관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 2회째를 맞이하며, 기후·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행사다.

올해 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 가는 무탄소에너지(CFE) 시대’를 주제로, 기후·에너지 분야 11개 콘퍼런스, 5개 전시관 537개 기업 전시, 55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콘퍼런스는 한-국제에너지기구공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행사 포스터.

동포럼과 에너지 인공지능(AI) 포럼,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해상도시 콘퍼런스 등이 열린다.

전시관은 무탄소에너지와 미래모빌리티, 환경, 해양, 기상, 산림 등을 주제로 구성된다.

부대행사로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회원국 대상 무탄소 에너지 워크숍과 원자력·청정 수소 포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30개 주한 대사관 인사와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의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국제에너지기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제에너지기구무탄소에너지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계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이행·확산할 방안을 모색한다.

4일 오전 10시 30분 벡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정부 차관, 파티비를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해외 정부 인사, 국제기구, 기업 대표 등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기조연설은 파티비를 사무총장과 제임스 바커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수가 말을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한국이 유엔총회에서 처음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올해 부산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시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한자리에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광주를 이롭게 내일을 밝히게’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광주기업 78개, 전국 기업 15개, 정책홍보관 22개, 추석 선물전, 상담관 등 121개 부스를 운영한다.

광주기업은 가방, 수공예품, 피아·베이커리, 홍보물품, 화장지, 인쇄출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전남교육청

#### 2022 개정교육과정 안착 지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5학년도 초등 3~4학년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교과별 원격연수 운영 지원에 나섰다.

이번 연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교과별 주요 변경 사항을 콘텐츠로 엮어내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의 효율성은 높이고, 대면형 연수로 인한 수업 결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원격연수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초등학교교육연구회 추천을 받아, 교과별 전문 교원 26명으로 구성된 원격연수 강사진을 구성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해 시행한다.

부산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부산=이도식 기자

### 사천시

#### 케이블카-삼천포항 도로 잇는다

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삼천포항이 막힘없이 하나의 도로로 연결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사천바다케이블카 대방정류장과 삼천포항을 잇는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개통했다.

시는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2017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8년에 완공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 포항시, 연말 동해선 구간열차 개통 교통 거점 자리매김 채비 본격화

오는 12월 예정... 이달 시운전 2026년부터 KTX-이음 투입 연계 교통망 정비·관광상품 모색

경북 포항시가 오는 12월 동해선(포항~동해 간) 구간 열차 개통을 앞두고 연계교통망을 정비하는 등 동해안권 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채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동해안권 지역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동해선(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으로 9월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포항-삼척-동해 간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포항-삼척 구간(166.3km)과 기존선인 삼척-동해 간 6.5km까지 모두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동해선이 개통되면 최고시속 150km의 KTX-이음(급행)과 누리로(완행) 열차가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이후 1년간 탑승 실적 및 예측 수치를 분석해 오는 2026년 초부터는 최고시속 260km의 KTX-이음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동해선 개통과 함께 포항역과 월포역의 연계교통망을 정비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동해선 열차 운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동해선 개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유역사인 포항역과 월포역 구간에 대해 간선·지선·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현재 운행 중에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동해선에 KTX 열차가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경북)=나영주 기자 ray6061@



조규일 진주시장(오른쪽)이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대상지에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진주시

## 진주시,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선정

### 4년간 마중물 사업비 83억 확보

진주시는 상봉지구가 2024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봉지구는 전국 최종 10개 선정지구에 포함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원, 도비 6억원 등 마중물 사업비 83억원을 확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인 상봉지구는 서봉지공원 일원 약 7만 4000㎡이다. 진주시는 봉황 설화가 얽힌 역사 자원을 활용

한 ‘봉황이 나르샤, 태평성대 상봉 이룬다!’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노후주택 및 골목길 정비, 빈집 정비, 문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좁은 골목길 경관 개선과 노후주택 집수리 72호 지원 ▲빈집 9호 철거 및 주차마당, 안전방재마당, 공유마당 등 조성 ▲주민들의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비봉산 산책길과 황새등공원을 연결하는 봉황 힐링로드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목포시, 스마트 해양도시 인프라 사업 소개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목포시는 전기자율주행 인프라 및 탄소중립 신산업 기반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를 주제로,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E)’에 참가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E)’는 전세계 70여국, 300개 이상의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아·태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로, 도시건설&인프라, 스마트 교통, 스마트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목포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

관한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기후 위기 등의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특화솔루션 선도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 목포시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스마트 그린도시 서비스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 분야의 전기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업사이클링 기획센터 및 체험전시관 구축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글로벌 스마트 해양도시 목포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남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환급행사

### 롯데ON, 우체국쇼핑 등서 시행

경상남도는 추석을 맞아 경남 수산물 릴레이 온오프라인 할인·환급행사로 풍성하고 알뜰한 한가위를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소비 경향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릴레이 할인 기획전을 열고 있다.

지난 12일 ‘롯데ON’에 경남 수산물 관측 상설관 ‘경남ON 수산물바다’를 개설해 연말까지 20% 할인쿠폰을 발행해 경남 수산물 온라인몰 릴레이 기획전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18일까지 ‘우체국쇼핑’ 지역브랜드관에서 추석맞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열어 도내 수산물 판매업체 100곳의 500여 개 제품을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30% 할인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발행한다.

‘e경남몰’에서는 추석을 맞아 ‘수요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모든 요일로 확대했고, 할인율도 20%에서 30%로, 최대 1만원에서 최대 2만원 할인으로 대폭 인상했다.

한편, 온라인 할인 기획전은 쇼핑몰 할인쿠폰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 “성장동력 확보하라”... 프랜차이즈, 메뉴·사업 ‘다각화’

**알볼로에프앤씨 ‘소토마레’ 상표 양식 중심 레스토랑 체인업 가능성**

**한국파파존스 ‘마마치킨’ 론칭 푸라닭 ‘움버거엔딩스’ 가맹사업 BBQ 해외진출·복합매장 전략**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메뉴 경계를 허물고 있다. 경기 불황에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보다 다양한 메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피자는 과거 외식 메뉴 중 하나로 손꼽혔으나, 1인 가구 확대와 함께 외식 메뉴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선호도가 낮아졌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냉동 피자가 일반 피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성장해 피자 프랜차이즈의 고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냉동피자 시장 규모는 2019년 900억원에서 지난해 1685억원으로 4년새 87%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피자 브랜드는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하거나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마마치킨 2호점 독립문점 오픈을 기념해 점주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파파존스

피자알볼로를 운영하는 알볼로에프앤씨는 최근 ‘소토마레’ 상표를 출원했다. 취급 상품으로는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등을 포함했다. 이에 알볼로에프앤씨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양식을 중심으로 새 레스토랑 체인업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파파존스는 지난해 자체 치킨 브랜드 ‘마마치킨’을 론칭했으며 현재 2개 매장(마포점, 독립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오리지날 케이준 후라이드 치킨과 버팔로 wings를 주력으로 선보인다.

치킨 시장에도 위기가 감돌고 있다. 대체품으로 홉플러스나 롯데마트 등

가성비 좋은 ‘마트 치킨’ 수요가 늘었고, 식품업계의 냉동 치킨 역시 각광받고 있다. 과거 눅눅한 식감과 까다로운 조리법으로 외면 받았지만, 최근 소스와 튀김옷 등 제조 기술 개선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기에 에어프라이어 등 조리 기구의 대중화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4월 출시한 ‘고메 소바바치킨(소스바른 바삭한 치킨)’의 성공이 기록제가 됐다.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치킨이 눅눅해지지 않고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이 유지되는 게 핵심이다.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540억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롯데웰퍼드의 ‘슈푸드 소

빠닭’, 오푸기의 ‘오즈키친 갈릭마요 치킨’ 등이 있다.

이러한 위기에 푸라닭치킨은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움버거엔딩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푸라닭 치킨은 2014년 1호점을 오픈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715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다. 치킨 브랜드 3사로 매출이 쏠리고 있는 데다 저가 치킨의 공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버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BBQ는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복합·대형 매장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BBQ는 서울 종각, 대구 등 주요 도시에 대형 매장을 오픈하며 젊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BBQ 빌리지와 프리미엄 카페리는 고급화된 매장 모델을 통해 190여 종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타 업종 외식 메뉴를 선보이거나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가 거세지는 이유는 소비자의 다양해진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매출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홈쇼핑 운송장서 이름 등 제거 ‘보안택배 서비스’ 도입

롯데홈쇼핑은 최근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송장에서 고객 이름, 연락처를 제거한 ‘보안택배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유통업계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해킹은 물론 시스템 오류, 휴먼 에러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3년 택배운송장에서 주문자의 실제 연락처 대신 가상 전화 번호를 부여해 고객 연락처 유출을 방지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어 2017년에는 전화 상담 주문 시스템에 일회용 보안 토큰 결제 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왔다.

롯데홈쇼핑은 이번에 보안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고객 이름, 연락처를 제거한 ‘보안택배 서비스’를 도입했다. /최빛나 기자

# 신세계·롯데 아울렛, 17년 만에 추석 당일 문 연다

**일부점포 당일 오후 영업 결정 일부서 입점사 휴식 방해 우려도**

올해 추석 당일은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또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을 위한도 한몫한다.

2일 신세계는 추석 명절 당일인 오는 17일 여주·파주·시흥·부산·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고 밝혔다. 신세계 아울렛 매장이 추석 당일 영업하는 건 2007년 첫 점포를 개점한 이후 처음이다.

롯데도 의왕과 동부산, 기흥, 김해, 이천, 파주 등 6개 프리미엄 아울렛과 부여·이시야폴리스점이 같은 시간대에



신세계아울렛 전경 /신세계

개장한다는 방침이다. 롯데 아울렛이 추석 당일에 운영하는 것도 2008년 점포를 연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이 추석 당일에 영업을 한다는 건 변화하고 있는 명절 트렌드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가을 나들이철과 추석 연휴를 맞아 교외로 떠나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일부 점포에 한해 당일 오후 영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적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명절 영업을 입점사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아울렛, 백화점들은 파트너사들에 명절 휴식권을 직접 결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와 롯데는 아울렛에 입점한 파트너사에 추석 당일 영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롯데 아울렛과 신세계는 파트너사의 80% 이상이 참여할 전망이다.

아울렛 대형 아울렛은 추석 당일 개장이 실적 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아울렛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전년 동기과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크리스피크림 도넛 국내 출시 20주년 기념 매지컬 데이 팝업 성황

롯데GRS가 운영하는 도넛 프랜차이즈 브랜드 크리스피크림 도넛이 한국 진출 20주년을 기념해 한강 예빛섬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매지컬 데이(Magical Day)’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크리스피크림 도넛의 20번째 생일파티를 콘셉트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세대들의 취향을 반영한 체험 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부터 MZ세대 고객, 외국인 등 다양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이틀간 약 3000명에 달하는 많은 방문객이 찾아 브랜드와 팝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증명했다.

매지컬 데이 팝업은 ▲게임존 ▲시네마존 ▲포토존 ▲도넛 카페 등으로 운영됐으며 한강뷰와 함께 크리스피크림 도넛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눈과 입을 모두 사로잡는 팝업스토어라고 호평했으며 SNS에 다수의 후기 게시글이 게재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신원선 기자

# CJ제일제당, 태국서 오-라이트 템페칩 출시 현대百, 日 한큐百과 VIP 공동마케팅

**사내벤처 조직 개발 고단백 스낵**

CJ제일제당이 단백질 스낵 신제품을 앞세워 태국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사내벤처 조직에서 개발한 고단백 스낵인 ‘O-right(오-라이트) 템페칩’을 태국에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오-라이트’는 스낵의 ‘둥근 모양(O)’과 ‘제대로(right)’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제품은 인도네시아의 콩 발효음식 ‘템페’를 활용해 만든 스낵으로, 한 봉지 당 6g의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됐

다. 콩을 갈지 않고 원물 그대로 발효시킨 템페의 고소함이 특징이며, 한국 음식에 관심이 높은 현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숯불갈비·볶음김치 맛과 태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리라차·트리플&치즈 총 4가지 맛으로 출시했다.

‘오-라이트 템페칩’은 현지 최대 온라인 유통채널인 쇼피·라자다, 대형마트인 빌라마켓·디어터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달 중 탐스, 빅씨, 고메마켓 등 다양한 메인스트림 유통채널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VIP혜택 제휴 업무협약 체결**

현대백화점이 일본 프리미엄 백화점의 상징인 한큐백화점과 VIP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에이치투오(H2O) 리테일링그룹의 한큐한신백화점과 ‘현대백화점-한큐백화점 VIP 혜택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큐백화점이 VIP 교류를 위해 해외 유통업체와 손을 맞잡은 것은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한큐한신백화점은 일본 대형 리테일

기업으로, 특히 오사카에 위치한 한큐백화점 우메다본점은 일본 전체 백화점 점포 중 매출 2위이자 글로벌 톱5 점포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VIP 고객층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큐한신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올해 초부터 대규모 휴게공간 구성 및 초대형 실내정원을 활용한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 전략, 이색 팝업스토어 유치 역량 등 더현대 서울 성공 노하우를 교류하던 중 자사 고객에게 더현대 서울 등에서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VIP 혜택 제휴를 추진하게 됐다. /최빛나 기자

# K 콘솔게임 육성에 155억 지원... 업계, 신작 준비 '분주'

전 세계 게임분야서 두 번째로 국내 콘솔게임 점유율 5.1% 그쳐 넥슨, 내년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크래프톤 '인조이' 하반기 출시 앞뒤 펠어비스, 자체개발 엔진 '붉은사막'

한국 콘솔게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고, 업계는 본격적인 콘솔 게임 콘텐츠 출시에 나서고 있는 것.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콘솔게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간 콘솔 게임의 불모지로 불리던 한국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 발판이 넓어지고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한국 콘솔 게임 육성에 155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7억원 증가한 예산액이다.

그간 국내 콘솔 게임 시장 사정은 좋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게임백서에 따르면 콘솔게임은 전체 게임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28%를 차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콘솔 게임기 이미지.

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국내 게임 시장 분야별 비중을 따져봤을 때 콘솔 게임의 점유율은 5.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 플랫폼사와의 협력,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게임 컨설팅과 홍보 및 유통을 전담하는 운용사와의 연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도 콘솔게임 육성에 집중한다. 넥슨은 콘솔과 PC를 기반으로 하는 액션 RPG 신작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오는 2025년에 새롭게 선보인다. 게임 주인공 '카잔'의 강렬한 전투와 독창적인 3D 셀 애니메이션을 기반의 그래픽 등을 통해 글로벌 콘솔 게이머들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 넥슨측의 설명이다.

3D 셀 애니메이션은 컴퓨터로 만든 3D 캐릭터와 배경을 이용해 2D 만화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애니메이션 기법이다.

크래프톤은 처음으로 콘솔 게임 시장에 뛰어 들었다. 크래프톤은 신작 '인조이(inZOI)'의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인조이는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꿈꾸는 외모와 집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 맞춤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콘솔형 기반의 게임이다.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신작 게임 '인조이'는 출시 전부터 '2024 게임스컴' 시연회를 통해 유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펠어비스 역시 콘솔게임 출시를 앞두

고 있다. 펠어비스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 게임인 '붉은사막'을 선보일 예정이다. '붉은사막'은 펠어비스의 자체 개발한 게임 엔진인 '블랙스페이스엔진'이 사용됐다.

펠어비스 신작의 전망도 밝다. 펠어비스에 따르면 프랑스 최대 게임 전문 미디어 유튜브(Jeux Video)는 펠어비스의 붉은사막을 '테크니컬 한 액션을 중세 판타지 오픈월드 탐험 요소와 결합한다면 최고의 기대작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유수의 콘솔 게임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콘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애초 게임기를 구입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장벽이 존재한다는 입장도 있다.

평소 게임을 즐긴다고 밝힌 이모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콘솔 게임기 구매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구매 외에도 새 버전 기기가 나오면 기기 자체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정관장 '천녹', 누적매출 6151억 '기염'

출시 당시 비해 477배 성장  
중장년층 하이엔드 건강식품  
인기요인, 품질·안전성 꼽혀

KGC인삼공사는 정관장의 프리미엄 녹용전문 브랜드 '천녹'이 2014년 출시 이후 2024년 7월까지 누적매출액 6151억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출시 당시 2억원 수준의 매출액이 2023년 842억원으로 477배 성장한 것이다.

연평균 고른 성장수치를 보였지만,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선물로 인기가 높아 명절을 앞두고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장 천녹'의 고객 연령을 분석한 결과, 주요 고객은 60대 이상이 41%, 50대는 32%의 점유율로 중장년층의 하이엔드 건강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정관장은 '천녹'의 인기 요인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신뢰를 꼽았다. 국내에서 녹용은 이전까지 주로 약재시장을 통해 유통되다 보니 원산지과 관리방법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건기식 1위 브랜드 정관장만의 차별화 전략이 고객의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천녹'은 '하늘이 내려준 귀한 녹용'이라는 뜻으로 청정 환경에서 자란 사슴의 뿔만을 엄선하고 전통 원료를 배합해 만든 프리미엄 녹용 브랜드로 최상위 등급(SAT) 녹용만 100% 사용한다. 또 농장 선정부터 수확 후 콜드체인 시스템 이송, 항공 직수입 등 원료의 생명력을 전하기 위해 8단계(직접계약, 생산관리, 안전성검증, 품질검증, 건조관리, 건조검증검수, 선별, 품질검사)에 이르

는 직접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125년 연구 노하우를 지닌 KGC인삼공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녹용 관련 특허만 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맞춤 설계로 '천녹'을 생산하고 있다.

'천녹' 브랜드의 대표 제품으로는 녹용 농축액인 '천녹정',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액상 스틱 형태인 '천녹정편', 액상 파우치 형태인 '천녹톤' 등이 있다.

강인한 녹용의 에너지로 생기 충전을 위한 여성 제품인 '천녹 라이블리', 남성 스태미나를 위한 '천녹 비스트롱', 시니어 맞춤 녹용인 '천녹 에너제틱', 수험생의 체력 집중케어 녹용인 '천녹 부스팅',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키즈 녹용인 '천녹 그로잉' 등도 출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클라비스 승마 문화서 영감 받은 가을 컬렉션 파트1 공개

이랜드월드에서 전개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클라비스'가 가을 시즌을 맞아 배우 조윤희와 함께한 '이즈 인투 디 어텀 클래식(Ease into the Autumn Classic)' 컬렉션 파트1을 오는 2일 출시한다.

'이즈 인투 디 어텀 클래식' 컬렉션은 클래식한 승마 문화의 우아함과 기품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다.

함께 공개된 화보 속 조윤희는 가을의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넓은 들안 속에서 말과 교감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파트1에서는 클라비스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축감니트 ▲찰랑셔츠 ▲슬랙스닝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생활건강, K뷰티 펀드에 50억 투자

뷰티 스타트업 적극 발굴·상생

LG생활건강이 스타트업과 상생을 강화하며 K뷰티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LG생활건강은 K뷰티 스타트업 전용 투자 펀드인 '마크-솔리드윈 뷰티 인텔리전스펀드 1호'에 5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마크-솔리드윈 뷰티 인텔리전스펀드 1호'는 최근 스타트업 투자사 마크앤컴퍼니와 솔리드윈파트너스가 뷰티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다. 총 100억원 규모의 펀드로 LG생활건강은 이중 절반인 50억 원을 출자하며 핵심 투자자로 나섰다.

LG생활건강은 이번 펀드 투자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디 브랜드와

신생 뷰티 스타업을 적극 발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 뷰티 테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창업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뷰티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 펀드는 마크앤컴퍼니가 보유한 뷰티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전문성을 갖춘 펀드 매니저들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혁신의숲 인사이트'라는 산업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자사물 거래액, 트래픽 성장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뷰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이청하 기자

## 에이피 뷰티, '메이크업·피부탄력' 한 번에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메쉬 파데

아모레퍼시픽은 고성능 스킨케어 브랜드 '에이피 뷰티'에서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메쉬 파운데이션'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 탄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입체적인 피부를 완성해 주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스킨케어 기능까지 갖춰, 노화의 흔적이나 피부의 결점을 보완하는 데만 집중하는 기존 메이크업 제품과는 차별화됐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메쉬 파운데이션'의 핵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228K'가 피부 속부터 피부 결까지 관리해 피부 밀도를 높여준다. 아모레퍼시픽은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사용 2주 후 58.6%의 탄력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 뷰티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메쉬 파운데이션' /아모레퍼시픽

또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메쉬 파운데이션'은 피부 친화적인 코팅 구조를 적용한 색소 입자 '리퀴드 다이아몬드 피그먼트'를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초미세 입자로, 높은 피부 밀착력과 메이크업 지속력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번 메쉬 파운데이션은 17C 쿨 포슬린, 21N 퓨어 아이보리, 22N 페탈 베이지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JW중외제약, 유튜브서 연구개발 성과 공유

'헬스피디아' 채널에 코너 신설

JW중외제약이 연구개발 성과와 비전을 알리는 새로운 미디어 공간을 기획했다. JW중외제약은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헬스피디아'에 새로운 코너 'JWR&D 인사이트(JWR&D INSIGHT)'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JWR&D 인사이트'는 JW중외제약을 비롯해 JW신약, JW생명과학, JW바이오사이언스 등 계열사의 신약개발, 기술혁신, 연구성과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관련 주제를 다룬다. 특히 연구개발자가 직접 출연해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지난 8월 30일 선보인 콘텐츠는 JW중외제약의 혁신신약 개발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신약연구센터와 C&C신약연구소를 집중 조명했다. C&C신약연구소의 연구기획팀장이 인공지능(AI) 기반 자체 R&D 플랫폼,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과제, STAT3 표적항암제 JW2286의 전임상 결과 등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송된 'Wnt 탈모치료제 JW0061'편은 지난 5월 미국 피부연구 학회를 통해 발표한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남성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 모델에서의 효능평가 결과 등을 소개했다.

/이청하 기자



#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 Towards Lux Mundi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의 혁신,  
현대사회가 남긴 문명사적 공헌이다. 우리는 그 수혜자다.  
그러나 그 이면엔 함께 풀어가야 할 도전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난과 질병, 정치·사회적 균열과 갈등, 전례 없이 깊어지는  
기후와 생태·환경 위기, 인간 통제를 벗어날 인공지능의 위협,  
핵 대전 가능성... 도래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가운데 지구적 재앙에 관한  
깊은 우려가 국제사회로부터 연이어 나온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지구 행성의 모든 이들과  
못 생명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상상과 의식, 지구적 실천 세계의 확장이 절실하다.  
유례없는 전환의 시대, 경희는 새 희망의 활로를 찾아 나선다.

## 경희대학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4.9.10(화) 10:00 ~ 13(금) 18:00  
입학정보 : [iphak.khu.ac.kr](http://iphak.khu.ac.kr) 입학상담 : 1544-2828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 경희사이버대학교

### 2025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4.12.1(일) ~  
입학상담 : 02)959-0000 / [go.khcu.ac.kr](http://go.khcu.ac.kr)

### 2025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4.11.11(월) ~  
입학상담 : 02)3299-8808 / [grad.khcu.ac.kr](http://grad.khcu.ac.kr)

1981년 경희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제안해, 유엔은 제36차 총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은 매년 9월 21일이다.  
Lux Mundi(룩스문디)는 '세계의 빛'을 뜻한다.



**금호건설, 캄보디아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 수주**

금호건설은 캄보디아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157억원이다. 금호건설은 6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오른쪽)과 땡 뽀니아(Peng Ponea)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건설



**여경현,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업무협약**

여경현은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프랑크푸르트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장(왼쪽)이 이은주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장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프랑크푸르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현



**동서발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한국동서발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중구 태화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임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과 임직원 급여 기부금으로 개인별 명절 성수품과 취약계층 지원 물품을 구매했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 세번째)이 장보기 행사에서 떡을 구매하는 모습. /한국동서발전



**이랜드재단, '크리스천 멘티 캠프' 성료**

이랜드재단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여름 캠프를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리스천 멘티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이랜드재단이 주최하고 선한울타리와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협력사로 참여했다. 정영일 이랜드재단 대표(사진)가 자립준비청년 여름 캠프에 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이랜드재단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노돔' 개방... 지역 소통 강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하이테크 중앙연구소 '한국테크노돔'을 대전 시민 80여 명에게 개방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들이 타이어 R&D의 최첨단 시설과 연구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타이어

# 미래 전기차 한눈에... 기아, '중남미 E-그라운드' 개소

**'플래닛·에너지·모빌리티' 존 운영 리딩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 강화**

기아가 에콰도르에 전기차 전용 복합 문화센터를 오픈하고 중남미 전동화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는다.

기아는 중남미 리딩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EV 복합 문화센터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에콰도르 수도 키토(QUITO) 소재)를 공식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 미래에 대한 영감을 줄 기아의 EV 복합 문화센터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는 지상 1층, 1420㎡(약 430평) 규모로 중남미 권역 고객 경험을 넓히고 기아의 기술혁신과 자연친화적 삶에 기여하는 전동화 기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는 꽃의 성장, 암석의 형성, 자연요소(물,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 전경 (좌)외부 (우)내부



/기아

공기)의 움직임에서 발견되는 피보나치 나선 디자인을 적용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내부는 ▲플래닛 ▲에너지 ▲모빌리티 3개 테마 존으로 구성돼 다양한 체험요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남미 권역 소비자 and 미래세대 대상으로 기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전동화, 지속가능 모빌리티 솔루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이다.

우선 플래닛 존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 오션 클린업 VR 게임, 탄소 배출 측정 키오스크 등으로 꾸며 기아의 친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체험공간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전 시 및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V

2L(Vehicle to Load) 및 EV 충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빌리티 공간은 EV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ADAS 기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아 브랜드 히스토리 월과 PBV(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호브 부스를 설치해 미래 전기차 시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파츠파츠 “지속가능한 패션 만나보세요”

서울패션위크 제로웨이스트 특별전

제로웨이스트 패션 브랜드 파츠파츠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자사의 친환경 제품군을 선보인다.

파츠파츠가 2025년 봄·여름 시즌 지속 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한 서울패션위크 'Fashion and The Sustainability'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파츠파츠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전시는 단순한 런웨이 무대가 아닌 참여자들에게 패션 브랜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전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DDP 디자인 랩 4층 잔디사랑방에서 진행된다.

파츠파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친환경 소재만으로 제품군을 구성하는 패션 브랜드다. 파츠파츠에 따르면 4개월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뉴 네오프렌이라는 단일 소재를 자체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무



파츠파츠, 서울패션위크 제로웨이스트 특별전 컨셉 이미지 사진 /파츠파츠

봉제 방식의 의류를 생산한다.

파츠파츠는 제로웨이스트 실현에도 앞장선다.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천과 남은 원단 조각을 재활용해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특히 2011년 브랜드 론칭 이후 제로웨이스트 철학을 담은 제품을 실제 판매용으로 출시하며 그 가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게 파츠파츠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파츠파츠의 고유한 디자인 설계와 생산 방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로웨이스트 생산 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대표 제품을 비롯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추가로 전시된다. 전시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철학을 탐구하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이달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에는 임선옥 파츠파츠 대표가 직접 참여한다. 필라델피아 드렉셀대학교의 정재운 교수가 이끄는 패션 전공 학생들도 동참한다.

임선옥 파츠파츠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패션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단편적인 시즌이나 트렌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보인다”며 “지속 가능한 패션을 통해 산업적으로도 끊임없이 미래를 탐구하며 해당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한국투자증권 에너지 빈곤국 아동 지원

태양광 랜턴 300개 전달

한국투자증권은 에너지 빈곤국 아동들을 위해 임직원 및 가족들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 300개를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력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라이팅 칠드런(Lighting Children)'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 임직원과 가족들이 손수 제작한 태양광 충전 랜턴은 추후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미얀마, 탄자니아, 말라위 등 해외 각국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전기 없이 캄캄한 밤을 보내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내일을 밝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인사

-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광호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이사 윤용희

### 부음

- ▲박재규씨 별세, 이희수(한양대 교수)·이희재(우성아이비 대표이사)·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이민희(문화해설사)씨 모친상 = 1일 낮 12시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02-3410-6901
- ▲류연중씨 별세, 류경화·류영자·류승남·류성(이데일리 국장)씨 부친상, 김재동·손주산·김종현(계원예술대 교수)씨 장인상, 한주현씨 시부상 = 2일 오전 3시40분, 새고창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063-561-2904
- ▲한병정씨 별세, 최봉호·최정호·최양호·최주호(삼성전자 베트남북한단지장 부사장)·최유호씨 모친상 = 1일, 전북 남원시 MG새마을금고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063-636-4141

## 환경부 '2024 환경창업대전' 시상

환경부는 오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서울 마포구 에스플러스센터에서 '2024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개월간 진행됐다. 아이디어(예비창업자), 스타기업(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2가지 부문으로 진행, 총 290팀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상위 4개 팀은 최종경연에서 전문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 평가단을 대상으로 발표경연을 펼치고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등의 최종 순위를 확정 짓는다.

/김대환 기자 kdh@

##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이사장 연임

이사회 만장일치 가결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이사장(사진)이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연임한다.

롯데복지재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6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승훈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사회에는 이사 6명 감사 2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이승훈 이사장의 연임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승훈 이사장은 내달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승훈 이사장은 1950년생으로 고



려대학교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7기를 수료했다. 1979년 롯데그룹 공채 2기로 입사한 뒤 롯데백화점 본부장을 맡아오다 롯데 스카이힐 CC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약 35년간 롯데에서 활약한 '정통 롯데맨'이다.

그는롯데복지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과 함께 재단 설립주인 고(故)신경호 회장의 뜻을 받들어 롯데의 사명을 가지고 회장님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미래를 먼저 만날 **SU** 있다 삼육대학교.

사람중심의 창의융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 SW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삼육대학교에서 먼저 만날 **SU**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안내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  
수시모집일 : 2024년 9월 9일(월) ~ 9월 13일(금)  
입학처전화 : 02-3399-3377~3379  
기타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syu.ac.kr>)로 문의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 돈키호테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돈키호테’는 다양한 세대 사람들의 단어다. 돈키호테는 워낙 유명해서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재탄생하고 있으며, 노래 가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돈키호테의 엉뚱하면서도 용감하고 유쾌한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돈키호테’ 방문을 추천하는 글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게 웬 돈키호테같이 엉뚱한 소리인지 궁금함도 잠시, 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방문 추천 이유가 “원만한 쇼핑은 돈키호테에서 모두 해결된다.”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물건도 그곳에 전부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은 들러봐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돈키호테는 그 이름이 특이한 것처럼 그 점포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곳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돈키호테 본사인 PPIH의 경영방침이 “고객

에게 두근두근 할 수 있는 체험을 계속 제공한다.”이기 때문에 상품 선별과 진열, POP 등이 다른 소매점들과는 분명히 차별되어 있다. 창업주인 야스다 다카오는 1978년 니시오기쿠보(西荻窪)에서 ‘도독 시장(泥棒市場)’이라는 이름의 소매점을 시작으로 1989년 돈키호테 1호점을 출점한 이후 2004년 100호점, 2013년 200호점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국에 479개,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105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2023년 6월 기준 매출액이 1조 9,368억 엔으로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으며, 특히, 34분기 연속으로 수익이 증가하여 코로나 19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돈키호테가 성공한 비결이 무엇일까? 단순히 재미가 있어서?

돈키호테 창업자는 시작에서부터 기존의 소매점들과는 다른 전략을 전개했다. 먼저 돈키호테의 전신인 ‘도독상점’은 자정까지 불을 끄지 않고 영업했으며, 현재 유명 관광지이자 주요 지역의 돈키호테는 24시간 영업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관광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차별된 전략이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편의점으로 유명한 세븐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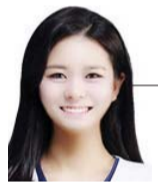
븐조차도 저녁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심야 영업을 익숙하지 않은 시기였다.

돈키호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특이한 전략은 바로 가맹점이면서도 각 점포에 최대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소매점들은 판매 가격 결정이 자유로운 편이다. 같은 상품도 가맹점 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며 차별화하는 고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근거리에는 같은 가맹점은 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상품 구색에서부터 가격결정까지 직접 해당 점포에서 모두 결정하기에 근처에 있는 돈키호테에서 같은 제품이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맹점이라는 시스템이 무색할 정도로 점포의 결정권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매장 회전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판단해서 빠르게 할인 판매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처 돈키호테에서는 정상가에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곳에서는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기도 일부러 여러 점포를 순회하며 구경하다가 다른 물품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답은 은행에 없다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증가했다. 5대은행이 통계치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은행을 점검하고, 이같은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예정보다 2개월 미룬 9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가계부채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

에 4월 4조 4346억원, 5월 5조 2278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규제 강화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몰렸다.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은행이 올리는 금리는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어떤 자금도 될 수 없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구역 늘리고 공급이 빠른 비아파트를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에 집을 매매하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렸고 집값은 고점 대비 95% 가까이 회복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가계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수도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도 효과를 보기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8월 31일까지 매매계약한 차주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매계약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이뤄지는 특성상 최대 2개월까지는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답은 이제 은행에 없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미루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동안 은행의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줄었다.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정책을 내놓을 때다.

/yul115@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3일 (음 8월 1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48년생** 지나친 욕심은 좋은 기회를 놓친다. **60년생** 가뭄이 해갈되듯이 일이 풀린다. **72년생** 여럿을 위해 중심을 세워 원망 듣지 않도록. **84년생** 버리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는 우유부단함
- 37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 **4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음주는 주의하도록. **61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보다 많다. **73년생** 같은 또래 용마의 거래가 순탄하여 서로 이득. **85년생** 사람들이 좋아하면 신명들도 좋아한다.
- 38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들도 외면. **50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 **62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 **74년생** 일이 어려우나 이웃사촌이 도와준다. **86년생** 애경사로 혼을 빼놓은 것 같은 하루이다.
- 39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51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63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75년생** 설계와 디자인 연구 하도록. **87년생** 욕심으로 재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 40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52년생** 업무 관련 약속을 소중히 해야. **64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워도 중심을 잡자. **76년생** 부모님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88년생** 밤늦게 찾아온 사랑을 방자한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 41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 감사함. **53년생**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어야 한다. **65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77년생** 남의 단점을 꼭 고집어내면 예상외로 나도 신음. **89년생** 자기가 아름다운 것은 공기도 사랑도 있기에.
- 42년생** 로또에 되려면 먼저 복권을 사야 하는데. **54년생** 도전할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라. **66년생** 예술적인 일을 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78년생** 이익 앞에서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해야. **90년생** 사랑하되 산뜻하도록.
- 43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밟고 올라선 내 밭. **55년생** 너무 방만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다. **6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상사에게 공손히. **79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어도 좋겠으나 생각하라. **91년생** 사색을 좋아하니 고독함도 즐겁다.
- 44년생** 자녀의 특기를 잘 살펴봐라. **56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주의. **68년생** 행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욕심만 줄이면 기쁜 좋은 하루. **80년생** 작은 것에 감사한 날. **92년생** 심장에 충격을 주는 심한 운동은 심장마비를 유발.
- 45년생** 주변 정리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 **57년생** 큰 그림을 그려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69년생** 두드려라. 열릴 때가 온다. **81년생** 원활치 못한 처세로 구설수가 있으니 동료와 말조심. **93년생** 단심조만고(丹心照萬古)로 부끄러움이 적다.
- 46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지내도록. **58년생** 기다리던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저어라. **70년생** 보이지 않는 손톱 밑 작은 가시로 고생. **82년생** 나무에 햇빛이 드는 양상으로 진취적인 기상이다. **94년생** 비뚤어 채워질 수 있는 평범한 진리.
- 47년생** 평소 나누는 행동이 작은 허물을 덮어 준다. **59년생** 뜨거운 물 조심. **71년생** 투자와 적신을 구분하고 행동. **83년생**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위상이 저절로 커져간다. **95년생** 사랑이란 복잡하고 유기적이어서 딱히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 김상회의四季 신비한 돌 ①

장량(張良)에 대해 전설 같은 일화를 보면 유방의 패권을 성취한, 소하(蕭何) 한신(韓信)과 함께 ‘삼걸(三傑)’의 한 명으로 뛰어난 정치가이자 책사 참모의 대명사로 통한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의 유류세가에서 그를 ‘하늘이 내린 참모’라 평하며 가장 이상적인 책략가로서 고고제인 유방의 모든 결정에 관여한 이로 장량을 꼽았다. ‘사기’에 따르면 장량이 뛰어난 책사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신비한 돌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장량이 다리를 건너는데 웬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자신의 신발을 다리 밑으로 던지고는 장량더러 주워오라고 했다.

장량은 의아한 가운데 노인의 청이다 보니 주워다 공손하게 바쳤다. 그런데 노인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발을 내밀며 신겨달라고 했다. 장량은 순간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신발을 신기자 노인은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노인은 다시 돌아와 장량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으니 님새 뒤 아침에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님새 뒤 아침에 이미 와있었던 노인은 어른과 약속해놓고 늦었다며 핀잔을 주고는 님새 뒤에 다시 오라고 하며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장량을 힘들게 하던 노인은 마침내 장량을 칭찬하며 그에게 태공망(太公望)의 병법서를 전해주면서 “13년 뒤에 산기슭에서 내가 마주치게 될 노란 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한다. 훗날 장량은 이 예언대로 산에서 노란 돌을 발견했는데 이를 가지고 온 후 유방과의 인연이 생겼다. 후에도 장량을 능가하는 식견이 없다 했고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판에서도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를 지녔다. 가보로 여기다가 사후에는 장량의 무덤에 함께 부장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돌 이름이 황석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교대 자퇴생 5년 새 5배 늘었다 '교권하락·교사채용' 축소 영향

종로학원, 전국 10개 교대 등 분석  
지난해 자퇴 등 중도 탈락 667명  
수도권 2개대 198명, 지방 8개 423명  
올해도 수시 수험생 모집 난항 예상

지난해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과에서 자퇴 등 중도 탈락한 학생은 667명으로, 수도권 2개 교대는 5년새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에 따른 교사 채용이 감소하는 데다 교권 추락 문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10개 교대에서 621명이,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서 46명이 자퇴 등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탈락에는 미등록·미복학·학사 경고 등이 포함되지만,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학별로 보면, 경인교대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교대 96명 ▲부산교대 67명 ▲공주교대 57명 전주교대 57명 ▲청주교대 57명 ▲대구교대 55명 ▲춘천교대 48명 ▲광주교대 47명 ▲진주교대 35명 순이다.

권역별로 보면 특히 수도권 교대의 학생 이탈이 지방보다 심했다.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두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은 ▲2019년 42명 ▲2020년 50명 ▲2021년 89명에서 2022년 154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98명으로 늘었다. 5년 새 중도 탈락자가 5배가량 늘었다. 지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0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 2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교총

방권 8개 교대에서는 423명이 중도 탈락했다. 중도 탈락자 추이를 보면 ▲2019년 191명 ▲2020년 222명 ▲2021년 281명 ▲2022년 324명 ▲2023년 423명이다.

특히 지난해 중도 탈락자 수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과 대비해 보면, 수도권 2개 교대에서는 모집정원(838명) 대비 23.6%, 지방권 8개 교대(2315명)에서는 18.3%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대는 신입생 모집에서 '입결'이 낮아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에 각 대학이 공개한 최종 등록 신입생 상위 70%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4등급 대 수준으로

대입 정시 합격선이 하락한 교대는 5곳이나 됐다.

'간판 교대'로 꼽히는 서울교대도 지난해 수능 위주 정시 전형 국·수·탐 백분위 평균 점수가 87.67점으로 3등급대로 하락했다. 수시 모집인원의 80.5%에 해당하는 149명을 뽑지 못해 정시로 넘기도 했다.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심화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현재 상위권 학생들의 교사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은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교대는 수시에서 추가합격을 진행하는 등 모집에 어려움 예상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택배 배송사로 ㈜한진과 ㈜비이투브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택배를 직접 인천 지하철 1·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일반 배송 기준 1,500원부터 택배 이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시 소상공인의 70%는 월평균 택배발송 물량이 10개 내외 소량이라 택배사들과 계약이 어려웠고, 계약 시에 높은 단가 부담과 당일배송 불가 등 문제점들이 많았다.

2024년 3월 발간된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배송시간 단축 및 택배료 절감 효과가 있어 23%의 소상공인이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로 참여하였고, 업체당 연 매출액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택배체계 대비 차량 이동거리가 13%가 단축되어 탄소 배출량이 25%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 '더리버사이드 호텔' 47층 랜드마크로 변신

녹지공간 품은 관광거점 재탄생

1981년 서울 강남권 제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품은 관광거점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6491.9㎡) 복합개발에 대한 최종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8년 호텔·오피스텔 등을 갖춘 47층 높이의 한강변 랜드마크가 조성될 전망이다. 연면적 11만2246㎡의 건축물에 호텔(5만7342㎡), 호텔 부속시설(2만4464㎡), 오피스텔(3만440㎡) 등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강남·북을 잇는 한남대교 남단과 경부간선도로 관문에 위치한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저층부에 풍부한 녹지 공간, 고층부에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숙박시설 등이 계획됐다"며 "향후 신사역, 잠원·반포한강공

원 일대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시가 지난해 3월 친환경·매력·관광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사전협상제도 개선 계획에 담겼던 인센티브 3종(건축디자인 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이 적용되는 최초 사례로, 최대 1023% 이내에서 용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149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기여를 통해 1978년 경부고속도로변 완충 녹지로 지정된 시설 녹지(2166.7㎡)가 기부채납된다. 호텔 구간에서 분절됐던 녹지가 이어져 강남권 최장 녹지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건물 저층부에 최소한의 로비 면적만 남기고 높이 25m(약 7층 높이) 이상 건물을 들어올려 인접 시설 녹지와 연계, 강남 도심에 약 6500㎡ 녹지숲을 만드는 혁신 디자인이 도입된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 청년정책 실효성 낮아 참여 활성화로 정책 효능감 ↑

청년참여 정책 진단·개선 보고서  
여건 고려·참여기회 제공 등 미흡

서울시의 청년 참여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 진단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이 전문가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을 진단한 결과,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참여 기회 제공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지를 의미하는 실효성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청년 참여 정책이 개별 사업과 정책 제안 위주로 확대되면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 권한 부여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청년 참여는 서울시 청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며 "청년 참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 정책의 추진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 정책의 태동과 발전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창립 이래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청년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 ▲서울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친화위원회를 통한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 인재 역량 강화 역할을 하는 '서울미래인재'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정책콘서트' ▲전문성 있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미래서울전략회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창구' 등 8개로 확대됐다.

/김현정 기자

## 서울 퇴직공무원 1000명 '늘봄 봉사'

안전지도·상담 등 활동 보조

2학기 서울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면서 1000명 이상의 퇴직 공무원이 학생 안전지도·상담 등 활동 보조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해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단인 '늘봄 봉사단'을 꾸리고 초등학교 학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돕는다고 2일 밝혔다.

'늘봄 봉사단' 자원봉사자는 9월부터 희망학교에 배치되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 1일 4시간 동안 학생 안전지도, 인솔, 상담 등 늘봄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봉사를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출범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 봉사단' 활동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봉사단의 출근부 관리, 활동경비 지급 등 행정사항 전반을 전담해 학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으로 서울형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함께 해주신 늘봄 봉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서울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사단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4 | 해질 / 18:58

9월 3일 (화)  
음력 : 8월 1일

수도권 날씨  
22~30°C

운중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빨래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세차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외출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0/30, 동두천 21/30, 가평 20/29, 양평 26/29, 용인 23/30, 평택 22/31, 수원 23/30, 파주 20/30, 백령도 22/28, 서울 22/30, 인천 23/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해리스, 대선까지 디지털 광고에 2700억 투입  
▲ 독일 지방선거서 극우 정당 승리... 나치 패망 이후 처음 /사진 뉴스스

▲ 독일 총리, 극우세력 견제 호소  
▲ 가자지구 인질 시신 수습... 이스라엘 서 휴전 요구 시위 /사진 뉴스스



▲ 해리스 지지율, 트럼프보다 4%p 높아... 여성 선호 뚜렷 /사진 뉴스스  
▲ 미얀마 내전으로 전력난... 전기요금 3배 ↑



프랜차이즈  
메뉴·사업 '다각화'  
니



Life

K콘솔게임 육성  
155억 지원  
L2



# 위생용품 지원, 구강관리 교육... “건강한 생활습관 알려요”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라이온코리아

전국 출산가정에 손세정제 무상제공  
서울시와 ‘아장아장 캠페인’ 재단장  
올해부터 5년간 4만명 임산부 지원

손세정제 ‘아이! 깨끗해’, 세탁세제 ‘비트’ 등 생활용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라이프·헬스케어 전문 기업 라이온코리아는 자사 제품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겠다는 기업 가치를 추구한다.

라이온코리아는 소비자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더 좋은 세상을 이뤄 나가겠다는 경영방침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10년 넘게 ‘아장아장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라이온코리아는 좋은 기업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아장아장 캠페인’은 라이온코리아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라이온코리아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56개 지자체의 출산가정에 ‘아이! 깨끗해’ 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규모만해도 연 평균 5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라이온코리아는 2023년 11월에는 서울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장아장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재단장했다. 그 결과 라이온코리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5억원 상당의 임산부 위생용품 세트를 마련해 매년 4만 명의 서울시 임산부를 지원하게 됐다.

‘임산부 위생용품 세트’는 아이! 깨끗해 항균 손 세정제, 시스템아 시린덴트 6024 치약, 시스템아 약한 잇몸용 칫솔 등으로 구성됐다. 임신기간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약해진 임산부의 건강과 위생 관리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 라이온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 위생용품 세트’가 포장된 상자 겉면에는 사회적기업 아립엔워림 소속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메시지가 담겼다. ‘꽃보다 귀한 우리 손녀 엄마가 된 걸 축하한다’는 문구는 아기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엄마’가 될 임산부의 건강한 일상도 잘 챙기길 바라는 의미를 표현해 따뜻함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라이온코리아는 사회적기업 아립엔워림과의 협업으로 소외계층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제품을 기부해 국민을 지원하는 형태는 라이온코리아가 유일무이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각 지자체는 예산



/유투이미지



지난 7월 8일 인천 당하초등학교에서 ‘슈퍼 건강 히어로’ 행사가 열렸다.

/라이온코리아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학생들이 실습 중에 라이온코리아의 칫솔과 치약을 활용하고 있다.



일상에서 많이 소비하는 생활가정용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태그’가 걸려 있다.

범위 내에서 손수건, 물티슈, 체온계, 아기 손톱깎이, 수유패드 등 임산부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민영 라이온코리아 ESG&커뮤니케이션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 위기 문제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이 정부 손을 맞잡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지역 사회에서 민·관·학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에서 라이온코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서대문구 보건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 분야 발전에 앞장서 왔다.

라이온코리아는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 ‘양치학교 구강교실’,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열고,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비롯해 보호자들에게 맞춤형 치약과 칫솔을 지원했다.

보건소, 연세대 치대와 구강건강 앞장  
영유아·초등생 맞춤형 치약·칫솔 지원  
구강교실 등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과 협업... 노인 일자리 창출  
시각장애인 안전 위해 점자 태그 제작

또 라이온코리아는 2019년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자사 오랄 관리 브랜드 제품 ‘시스템아’ 칫솔과 ‘작트’ 치약으로 예비 치과의사들이 구강관리법을 연구하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치의학과 본과 학생들은 구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용품의 실질적인 사용법,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추천 등에 중점을 두고 실습을 해 왔다. 이러한 라이온코리아의 교육 현장 지원 활동은 2015년과 2018년에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자사 공장이 위치한 인천에서도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라이온코리아는 올해 5월 인천 초등학교 12개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원으로 위생교육 프로그램 ‘슈퍼 건강 히어로’ 캠페인을 운영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라이온코리아는 위생과 청결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영상 콘텐츠를 선보여 올바른 이 닦기와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는 ‘30일 챌린지’도 실시했다.

이후 라이온코리아는 지난 7월에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참여형 교육 행사도 기획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슈퍼 건강 히어로’ 온라인 수업을 성실히 수행해 높은 완주율을 기록한 우수 학교를 선정했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행사는 아이들의 성취도와 흥미를 한층 높였다는 것이 라이온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라이온코리아는 생활가정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소속 기업으로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이온코리아는 2022년부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안전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전 확보를 돕기 위해 제품 식별용 점자 태그를 제작·보급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보편적 소비자기본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라이온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라이온코리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시제품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

라이온코리아가 제작한 점자 태그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위생적이고 유연한 실리콘 소재로 안전성과 점자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고, 다양한 규격의 제품에 목걸이처럼 걸어 쓸 수 있도록 분리형 디자인을 적용해 편의성과 활용성까지 갖췄다.

이밖에 라이온코리아는 2020년부터 4년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함께 ‘아이 깨끗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 바 있다.

제품 포장 디자인부터 판매용 세트 조립과 판매까지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했으며,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됐다. 총 4년간의 누적 기부금은 1억8000만원에 달하고 총 13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냈다.

라이온코리아 ESG&커뮤니케이션실 강민영 실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생애 주기별 적합한 건강 관리법을 제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홍명보호’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준비 시동  
▲영국 양궁 선수, 패럴림픽 최초 임신 중 메달 획득 /사진 뉴시스

▲문체부, ‘9월 독서의 달’ 맞아 전국서 책 읽기 행사  
▲올 가을 서울 페스티벌... ‘서울축제지도’서 확인해요



▲파리올림픽 열기 잇는다...제105회 전국체전, 10월 경남서 개막  
▲‘경복궁 야간 관람’, 4일부터 선착순 예매 /사진 뉴시스